연구보고서 2016-44-01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김경근 · 우석진 · 최윤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문음사, 2004(단독)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Springer, 2014(공저)

【공동연구진】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최윤진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1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김 경 근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범신사
가 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10-7 93330

제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내용 ····· 13

제3절 연구 방법 ····· 15

제2장 이론적 배경 ····· 19

제1절 자녀의 가치와 그 영향요인 및 출산 ····· 21

제2절 대학 진학,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 30

제3절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정의적 발달, 양육 방식 간 관계 ····· 41

제3장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및 정책적 함의 ····· 49

제1절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 이해를 위한 모형 설정의 논거 ····· 51

제2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실제 ····· 53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정책적 함의 ····· 59

제4장 교육비가 출산에 미친 효과 ····· 63

제1절 연구 개요 ····· 65

제2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 67

제3절 분석 결과 ····· 73

제4절 소결 ····· 79

제5장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 ····· 81
제1절 연구 방법 ····· 83
제2절 교육 수준과 결혼이행 과정: 고학력화 추세를 중심으로 ····· 92
제3절 교육열과 저출산의 연쇄작용: 자녀 수 결정요인 및 양육 방식의 해부 ·· 114
제4절 소결 ····· 151

제6장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에 대한 종합적 논의 ····· 161
제1절 교육 관련 미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 163
제2절 교육 관련 거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 165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 166

제7장 결 론 ····· 169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 171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 176

참고문헌 ····· 181

부 록 ····· 195

표 목차

〈표 4-1〉 기초통계량 ····· 70
〈표 4-2〉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교육) 분류 ····· 71
〈표 4-3〉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77
〈표 4-4〉 학령기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78
〈표 5-1〉 교육과 저출산 관계에 대한 면담 내용 ····· 84
〈표 5-2〉 미혼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6
〈표 5-3〉 예비 신혼부부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8
〈표 5-4〉 유자녀 부모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9

그림 목차

[그림 3-1] 한국 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 59
[그림 4-1] 육아물가지수 변화 추이 ····· 66
[그림 4-2] 지역별 교육비 추이 ····· 72
[그림 4-3] 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 ····· 74

부그림 목차

[부그림 1] 초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 195
[부그림 2] 중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 196
[부그림 3] 고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 197
[부그림 4] 기타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 198
[부그림 5] 지역내총생산과 출산율과의 관계 ····· 199

Abstract

A study on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fertility: A macro-micro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licated link between education and fertility, focusing on how macro-level factors influence micro-level decisions with respect to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fter construc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ducational influence on fertilit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followed to explore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fertility.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re discussed.

Education fever in Korea appears to be a major cause for low fertility.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hinders fertility rate, in particular.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firms the fact that increased education cost drops fertility rate. College tuition and private tutoring fee are especially related to low fertility. Qualitative analysis also improve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Educational attain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age at first employment and marriage due to labor market situation. In addition, excessive parental desire for children's future career success restricted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social atmosphere of cre-

dentialism and poor employment rate in labor market.

Based on these results, two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full governmental support on childrearing is necessary. Second, parenting style fixated on academic achievement should be redirected to focusing more on emotional support for children to develop social skills and character suitable for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육 관련 요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육과 출산 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함에도 양자 간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간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개인의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거시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서로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복잡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하다. 교육열에 기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직결되어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출산율에 더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도 상승하지만, 실제로 결혼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자녀만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보육·교육 환경 관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주의와 노동시장 상황이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통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부모의 자녀 성취 욕구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을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로 규정하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

고 있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올인(all-in)'식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모든 양육자원이 한 자녀에게 전폭적으로 집중 투자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올인(all-in)'식 투자는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공하는 행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반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제한된 양육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와 재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자녀의 성취 욕구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이다. 교육열은 부모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보육·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해 자녀를 갖는 비용을 크게 높임으로써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원을 토대로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보다 정서적 자원의 공급을 강

화하여 인성 및 사회적 역량에서 강점을 갖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양육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고자 하는 가정이 외동아만을 키우면서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좀 더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고자 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기실 고도 성장기에는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녀 양육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세적인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시대적합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외동아 대신 형제아를 두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서로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부모를 여읜 후에 인생의 태반을 동기(同氣)의 사회적 지지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조치는 아니다. 기왕 자녀를 둘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두 명은 두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고 시대적 합성을 갖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 가운데 특히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에듀푸어'로 전락하는 것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교육열, 저출산, 외동아, 형제아, 사교육비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6.0명에 달했고, 이 때문에 정부는 개발연대 동안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에 힘입어 1985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1.7명으로 급감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던 급격한 출산력 변화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IMF 환란을 경험한 뒤로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이후 상황이 다소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2015년 기준 한국인구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대만, 루마니아,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6).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점과 함께 과중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두섭, 2015; 보건복지부, 2011).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60.2%)'을 가장 많이 꼽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득, 고용 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주택 마련 비용 부담(1.2%)' 등도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이처럼 교육과 관련된 요인들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작동 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와 심각한 학력 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다수 고졸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유보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입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입직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혼 연령도 상승하여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과 비교해 남자는 1.7세, 여자는 2.3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과 관련하여 저출산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2013년에 발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총 3억 8964만 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자녀 양육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로 밝혀졌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저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높았던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진 결과, 1997년 이후 출산수준은 부부 교육 수준이 중상층인 집단이 가장 높고, 최상위 집단, 하

위 집단이 그 뒤를 잇는 양상으로 바뀌었다(김두섭, 계봉오, 2014). 외환위기 이후에 출산력 저하가 저학력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학력 부부들에게 자녀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들의 출산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김두섭, 계봉오, 2014).

기본적으로 교육과 출산 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며, 이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단선적이고 표피적인 이해는 적실하고 타당한 저출산 대책을 구안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그간 교육과 저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다루었다(김두섭, 2007; 신윤정, 2008; 우해봉, 2009, 2012; 최필선, 민인식, 2015). 반면 김경근(1996)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시적 수준에서 교육과 저출산 간 관계를 살펴본 논고는 거의 없다. 개인의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과 저출산 간 관계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은 과중한 보육·교육비 부담을 통해 저출산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저출산 현상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공리적 가족주의의 강화를 통해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근자에 대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조기 참여와 지출 증가가 이를 방증한다.

2015년 4월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 지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3조 2289억 원으로 2013년보다 5874억 원(22.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증가율의 10배에 달하는데, 자녀를 한 명 정도만 갖는 저출산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올인(all-in)'식 투자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성적표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김경근, 2016).

또한 한국 사회에서 대졸자의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 외에 결혼시장에 대한 고려가 개인의 미시적 수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열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대학 진학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저출산 간 연관성을 구명하는 데도 다른 거시적 요인들과 함께 교육적 동질혼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응당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박현준, 김경근, 2012). 아울러 개인 수준의 교육 및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실효성 있고 타당한 정책 대안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발

표된 교육과 출산력 변동 간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을 해부할 수 있는 미시-거시 영향모형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셋째, 제시된 미시-거시 영향모형을 바탕으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양적 및 질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거시적 접근이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고 타당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자녀의 가치와 그 영향요인들을 논의하고 대학 진학,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형제자매 수가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형제자매 수와 양육 방식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교육과 출산 간 미시-거시 영향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 이해를 위한 모형 설정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양적, 질적 분석의 개념적 분석틀로 사용된 교육과 출산 간 미시-거시 영향모형을 설정하는 한편 그 논리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교육과 출산 간 미시-거시 영향모형이 한국의 현실과 관련하여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하여 교육비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교육비 관련 물가지수가 출산행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교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과거 30년(1985~2015)에 걸친 교육 관련 물가지수 자료가 사용되었고 지역-패널 분석이 수행되었다.

제5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교육과 저출산의 연계성을 미시적 수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먼저 결혼이행 과정에서 교육 수준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혼의 의미와 결혼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배우자 선택에서 학력과 학벌이 갖는 의미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출산이행 과정에서의 자녀 계획 선택 과정과 자녀 교육 실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예비부부의 자녀 계획 선택 과정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유자녀 부모의 자녀 교육 실천 행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교육과 출산 간 미시적-거시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미시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육 관련 거시적 요인들의 출산에 대한 영향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명하고, 실효성 있고 타당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이 동원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교육과 저출산 간의 연계성을 고찰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교육 관련 요인들을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 모형에 투입될 요인들의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면담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을 개발하였으며, 종래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다룬 연구들의 의의와 제한점을 분석하고, 이를 연구 결과의 해석과 대안 모색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양적 연구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최윤경 등, 2015). 교육비도 양육비의 일부분으로서 최근 사교육비

의 급증에 따라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윤경 등(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육아와 관련된 물가지수를 계산하고, 육아물가지수가 출산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VAR(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사교육비의 급증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 방법을 통해 보육·교육비 관련 물가지수에 따른 출산 행태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교육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 관련 물가지수의 과거 30년(1985~2015)의 변화가 여성의 출산 결정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주었는지 지역-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의 구체적인 모형은 Arellano & Bond(1991)와 Baltagi(2008)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3. 질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저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누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이행 과정에서 교육 수준이 어떠한 의미부여와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지 탐구하였는데, 특히 결혼시장(marriage market)에서의 가치를 위해 학력과 학벌이 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동기와 욕구에 내재된 교육 수준과 결혼의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미혼 증가, 비혼, 초혼 연령 상승,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혼자의 출산이행 과정에서 자녀 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자녀 계획 또는 자녀 계획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소위 소자녀로 분류되는 한 자녀, 두

자녀를 둔 부부,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키우는 부부 등 다양한 출산행태를 선택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 자녀 교육의 가치,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른 자녀 교육 지원행태와 실천의 중층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과 저출산 간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자녀보육과 교육비 부담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작동시키는 본질적 기제가 무엇인지 교육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미시적 차원의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행위자인 부모의 자녀 교육 가치와 교육관 그리고 양육 태도와 행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녀 교육과 저출산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 관련하여 결혼이행 과정과 출산이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당사자로서 미혼 남녀, 그리고 다양한 자녀 계획에 따른 교육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반영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 기반 선정(criterion based selection)을 기초로 '고유 표본 선정(unique sampling)'과 '눈덩이 혹은 연쇄적 표본 선정(snowball or chain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면담대상은 연구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섭외하였는데, 먼저 결혼이행 과정 관련 연구 대상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의 미혼 남녀이며, 초대졸과 대졸 이상 학력자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출산이행 과정 관련 연구 대상은 신혼부부, 소자녀, 다자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도 자녀 출산 계획 의사결정 여부, 자녀 수와 자녀의 성별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은 면담 대상 집단별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위해 기본 질문을 설계·구성한 것을 기초로 진행됐으며, 면담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비구조화된/비형식적인 인터뷰'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녀의 가치와 그 영향요인 및 출산
제2절 대학 진학,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제3절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정의적 발달, 양육 방식 간 관계

2 이론적 배경

제1절 자녀의 가치와 그 영향요인 및 출산

1. 자녀의 가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무척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성가신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부모의 판단은 자녀의 존재와 관련하여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득실, 사회적 보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같은 부모의 판단은 그것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견지되는 경향이 있다(김경근, 1996).

자녀의 가치(value of children) 개념은 인구심리학과 경제학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부모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려준다(권용은, 김의철, 2004; Arnold et al., 1975; Hoffman & Hoffman, 1973; Kohlmann, 2002; Nauck, 2007; Schultz, 1973).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측정했던 Hoffman & Hoffman (1973)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망라하도록 했다. 그리고 응답한 부모들은 자녀의 가치를 성인으로서의 지위 획득, 사회적 정체성, 자아의 확장, 도덕적 의무, 가족으로서의 연대감, 자극, 신기함, 즐거움, 성취, 창조, 힘, 영향력, 사회적 비교와 경쟁, 경제적 효용성 등으로 다양하게 적시했다. 이 초기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자녀의 가치는 다시 경제적 가치, 심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세 가

지 범주로 구분되어 각 가치가 어떻게 규정되고 사회변동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연구되고 있다(Arnold et. al., 1975; Kohlmann, 2002).

먼저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족 전체에 발생하는 단기적·장기적 편익과 비용을 의미한다(Arnold et. al, 1975; Schultz, 1973). 이러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통해 얻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취하게 된다(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Schultz, 1973). 자녀를 통해 얻는 금전적인 편익은 다시 단기적 편익과 장기적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편익으로는 전통적인 농경사회나 개발도상국에서 자녀의 노동으로부터 획득하는 가계 수입의 증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장기적 편익은 자녀가 일종의 노년기 보험으로서 은퇴 후에 부모를 봉양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모에게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직접적·간접적으로 그들의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금전적 비용이 임신부터 출산, 양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자녀에게 투자해야 하는 모든 직접적인 지출을 의미한다면, 시간의 투자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일련의 활동들(예: 경제활동 참여)과 결부된 기회비용의 성격을 띤다(Schultz, 1973). 이 경우에 시간의 투자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래에 가져다 줄 유형 또는 무형의 이득과 현재 부모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수입을 포기하는 비용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합리적 선택의 과정을 수반

하게 된다(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다음으로 자녀의 심리적 가치는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연대감과 안정, 감정적인 자극과 즐거움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Arnold et al., 1975). 심리적 가치 중 긍정적인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행복과 즐거움 등이 있고, 부정적인 가치는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심신의 불편함 등을 들 수 있다(권용은, 김의철, 2004; Nauck, 2007). 그중 심리적 가치를 대표하고 부모들이 실제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큰 이유로 든 것은 바로 가족 간 연대감과 애착의 증가 및 그로 인한 행복이다(Hoffman, Thornton & Manis, 1978).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자녀의 출산 이후 발생하는 가족 간 연대감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 및 행복은 자녀의 가치 중에서도 부모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Hoffman & Hoffman, 1973). 가족 간 연대감의 증가에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정서적인 만족과 더불어 결혼의 지속성 강화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er, 1981; 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한편 자녀의 심리적 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삶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극과 재미를 느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Hoffman, Thornton & Manis, 1978).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만의 삶에서 자녀와 같이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긍정적인 자극과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심리적 가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녀가 추가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가사노동, 즉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곧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에 더해 부모로서의 역할의 추가는 그 자체로 정서적인 피로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울러 만일 경제활동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기회비용과 관련하

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역할기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사회적 가치는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적 의무와 역할의 충족 및 사회적 지위의 세습 또는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Arnold et al., 1975). 부모가 되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감과 경제적인 이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모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대 또는 도덕적인 의무를 함께 수반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과 남성이 이러한 기대와 의무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된다(Hoffman & Hoffman, 1973). 한편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가계를 계승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가계를 계승함으로써 갖는 사회적 가치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서 남아가 선호되는 경향이나 서구 문화권에서 남성의 경우 성(family name)을 이어받기 때문에 자녀가 자아의 확장으로서 가치 있게 인식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김미숙 등, 2014; Hoffman, Thornton & Manis, 1978; Nauck, 2007).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양육 및 교육은 가족 전체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인간자본 축적을 위한 부모의 교육적인 지원 및 투자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Hoffman & Hoffman, 1975; 김경근, 1996; 김경근, 1998).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공리적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사회변동과 자녀의 가치 및 출산력의 변화

자녀의 가치는 문화권이나 국가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녀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을 구명하려는 시도가 자녀의 가치를 연구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미숙 등, 2014; Hoffman & Hoffman, 1973; Nauck, 2007).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변동은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출산력 변화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근, 1996). 이에 여기에서는 자녀의 가치가 사회변동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출산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자녀의 가치는 1960년대에는 주로 '노후 의탁'의 관점에서 평가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키우는 재미'로 변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자녀가 '교육과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미숙 등, 2014; 한국경제, 2015. 3. 5).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주로 지녔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로는 자녀가 주는 행복과 재미와 같은 심리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적 가치나 심리적 가치가 크게 낮아진 대신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 열망의 충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매몰되면서 자녀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 기대되는 편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이 자녀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출산력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자녀로부터 생산적인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래에 부모가 자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 자체도 크게 감소시켰다(김경근, 1996).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였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이른 나이에 가정의 노동력에 보탬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동의 노동력이 가계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는 아동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적 관점에서 자녀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크게 약화시킨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건 무상교육의 확대와 함께 진행된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서 얻는 물질적,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ohlmann,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주로 의미하게 되어 출산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자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족 간의 연대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 키우는 재미 등의 대안적인 가치가 부각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부모의 노후 보장과 관련된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적으로 육체노동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부모가 축적한 부를 어린 자녀에게 이전하는 반면, 노후에는 자녀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산업화는 육체노동에서 매우 중시되는 완력이 노동생산성과 직결되기 어려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해 세대 간 부의 이전보다는 토지, 돈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축적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된다(김경근, 1996).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낮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타적인 태도를 보다 강조하고 자녀의 성공을 가족 전체의 성공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접적인 부의 이전, 즉각적인 편익을 통한 상호 간의 의존적인 관계가 확고하게 존재했을 때보다는 자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출산력 감소가 불가피해진다(김경근, 1996; 한남제, 1986; Kagitcibasi, 1982; Nauck, 2007; Willis, 1982).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이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자녀의 출산을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체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의 역할을 자녀 양육을 비롯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한했었다(김경근, 1996). 하지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약화와 여성에 대한 교육의 확대는 여성의 인적자본 신장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경제활동의 포기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자녀 가치의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의 역할은 일과 가정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민아, 2013).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치열한 교육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경쟁은 외환위기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및 저출산의 고착화를 배

경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2000년대 이후 부모들이 자녀의 가치를 '교육과 투자의 대상'에서 찾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육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이고 경쟁적인 증가는 자녀의 가치 결정요인 중 편익보다는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자녀에게 투자되는 금전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심리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을 사회이동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종의 가족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여에 따라 자녀와 가족 전체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선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가치 및 출산 간 관계

사회변동이 야기한 거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도 자녀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교육 수준, 도시 거주 경험, 직업 경력, 연령, 성별, 결혼(초혼)연령 등이 자주 거론된다(Arnold et al., 1975). 이와 함께 가족 전체의 빈곤 또는 부, 주거 상태, 어머니의 건강, 가족의 지원 등도 자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Hoffman, Thornton & Manis, 1978).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출산율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은 출산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Hoffman, Thronton & Manis, 1978; Kohlmann, 2002).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일수록 자녀의 출산을 통해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이민아, 2013; Schultz, 1973). 즉 고학력 기혼 여성으로서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휴지기를 가지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그가 가진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회의 상실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소득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Kohlmann 2002).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Trent & South, 1992).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목도되는 출산 이전의 결혼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으며, 결혼이나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는 선택을 낳기도 한다(Basu, 2002).

한편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보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 고등교육에 대한 선호도 강한 경향이 있다(강희돈, 1994; Hoffman, Thronton & Manis, 1978).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에게도 교육의 중요성을 내면화시키고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적 성취 제고에 집중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부 고학력 여성인 경우 높은 가계소득에 힘입어 취업보다는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교육에 전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대일, 2008; 김우영, 2008). 경제적 지출 증가 및 취업 포기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녀를 갖는 데 치러야 할 총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자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

제2절 대학 진학,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1. 학력주의, 노동시장 상황 및 대학 진학 수요

대학 진학 수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먼저 학력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Collins, 1979; 강희돈, 1994; 김경근, 1996, 2016; 김두환, 2015; 김영화, 유한구, 1994). 학력주의는 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준거로서 기능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Collins, 1979). 학력주의가 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회에서는 학력이 능력의 증명으로 간주됨에 따라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직업지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Meyer, 1977).

학력이 곧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간의 논쟁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Baker, 2014).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지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한의 증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Becker, 1964).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본 능력과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고차원적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Baker, 2014; Hyman, Wright & Reed, 1975; Spaeth, 1976).

한편 선별가설에 따르면 학력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은 학교교육과 학력이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여기는 인식과 관행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인증기관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력에 따른 임금 및 고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Dore(1976)가 주장한 졸업장 병(diploma disease)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학교가 기존의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는 것 외에는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데도 학교교육에서 자격을 인증해 주는 졸업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나친 열망은 사회적으로 과잉교육으로 인한 불만과 불안정을 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이 실제로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가정 배경에 따른 계층재생산에 기여할 뿐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 임금, 직업지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는 특히 대학 진학과 졸업 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자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두환, 2015). 이에 따라 과잉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양산에 따라 노동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Baker, 2014).

교육팽창에 따라 학교교육이 보편화된 '학교화된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내 직업구조가 변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중 증가와 더

불어 노동시장 전반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회계, 감사, 기금 조성, 법적 계약, 사회적 책임, 전략적 계획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철저하게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Drori, Meyer & Hwang, 2006). 과잉교육과 탈숙련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와 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및 규범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력주의는 노동시장과 교육 간의 관계, 사회적 지위와 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집단적인 인식에 의해 형성된 강력한 사회적 믿음으로 볼 수 있다(Collins, 1979; Meyer, 1977). 이러한 믿음은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연계되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늘리고 대학 진학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김경근, 1998).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 사회이동의 수단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인식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본을 소유하지 못해 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성세대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경험을 물려주고자 하는 교육열을 한층 가열시킨 측면이 있다(강희돈, 199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로서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큰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박남기, 1994).

2.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결혼은 출산력과 관련된 생애 사건(life event)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결혼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시행 여부 및 시기가 영향을 받는데,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육 관련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결혼 연령이나 결혼 의향 및 결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은 결혼 연령을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성준, 2015; 류기철, 박영화, 2009; Blossfeld & Jaenichen, 1992; Isen, 2010; Lawrence, 2005). 이는 남녀 모두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가정을 꾸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어렵고(Goldscheider & Waiter, 1991; Oppenheimer, 1988), 재학 중인 학생이 혼인 및 동거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Blossfeld & Jaenichen, 1992; Thornton et al., 1995). 이는 결혼은 교육을 마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결혼 연령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 수준이 결혼 연령이나 결혼 의향 및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코호트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의 영향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김성준, 2015; 이삼식 등, 2005; Isen, 2010). 이러한 연관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가족 부양의 책임이 무거운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결혼 가능성 사이의 정적 관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Isen, 2010).

반면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가능성 간 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Becker, 1981).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가도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졌고 전통적으로 주어진 가정 내 역할을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생활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고(Caldwell et al., 1983; Jejeebhoy, 1995), 특히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은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비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성준, 2015; 류기철·박영화, 2009; 우해봉, 2012; 윤자영, 2012; 이삼식 등, 2005; Basu, 2002; Bracher & Santow, 1998; Diamond, Newby, & Varle, 1999; Isen, 2010; Requena & Salazar, 2014).

여성들의 교육연한이 늘어나고 직업지위 획득에 대한 열망이 높아짐으로써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교육 수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먼저 일군의 학자들은 높은 교육 수준이 여성의 비혼 선택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김성준, 2015; 윤자영, 2012; Isen, 2010; Requena & Salazar, 2014). 이러한 학자들은 고학력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Becker, 1981)에 근거를 두고 논지를 펴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성별 분업이 강했던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Requena & Salazar, 2014), 이 같은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육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할 공산이 크다(Becker, 1985).

다음으로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혼 연령의 상승을 야기하지만 비혼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민현주, 김현지, 2011; Blossfeld & Jaenichen, 1992; Goldstein & Kenney, 2001). 이러한 입장에 선 학자들은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확대된 초기에는 높은 교육 수준이 결혼 연령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화될수록 이 같은 경향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고학력 여성은 결혼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는 데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교육을 마치고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과 비교할 때 결혼 연령이나 결혼 가능성에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결혼 여부 간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교육적 동질혼(educational homogamy)의 관점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결혼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소비를 위해 유사한 취향과 능력을 가진 남녀가 결합한 결과라는 관점(Lam, 1988; Lundberg & Pollak, 2007)이 등장하면서, 고학력 여성이 고학력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혼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교육 수준은 개인의 직업지위나 소득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나 문화적 선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Satoshi, 2005). 이 밖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화될수록 결혼이 성별 분업보다는 가정의 가용자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기 쉽기 때문에 노동시

장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Blossfeld & Timm, 2003; Kalmijn, 1998; Mare, 1991; Oppenheimer, 1994; Smits & Park, 2009). 마지막으로 고학력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교육적 동질혼은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기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D'Addio & d'Ercole, 2005).

한편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결혼시장에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남성과의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Park & Smits, 2005). 학력주의가 유독 강한 한국 사회의 경우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데, 고학력 여성들은 교육적 동질혼을 통해 자신의 학력을 획득하는 데 투입되었던 비용을 결혼시장에서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성별 분업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또한 한국 사회의 강한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열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이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자녀가 우위를 점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고학력 남녀 간의 교육적 동질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 & Smits, 2005; 박현준, 김경근, 2012).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삼식 등(2005)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영유아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신윤정 등(2008) 또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보육비의 경우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계층 간에 지출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2005년 이후로 보육·교육비 부담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김두섭 등, 2007; 서정연, 김한곤, 2015; 송유미, 이제상, 2011; 최준욱, 송헌재, 2010).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Becker & Lewis(1974)가 제시한 자녀의 수와 질 간의 상충관계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자녀에 대한 비용의 지출을 늘릴 경우 자녀의 수를 줄여야 하고, 자녀를 많이 두게 되면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출산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Becker et al.(1994), Mincer(1984) 등은 교육투자

를 통해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성인기에 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교육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력 감소로 이어지는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Becker et al., 2010; Bleakley & Lange, 2009; Murphy, 2009; Murtin, 2009).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 강한 교육열이 이러한 상충관계와 관련하여 자녀의 질을 보다 강조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Anderson & Kohler, 2013). 즉 교육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교육적 동질혼을 통해 가용자원을 극대화하고, 자녀를 적게 낳음으로써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김경근, 2016).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 간의 부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Anderson & Kohler, 2013). 교육비 지출 외에도 교육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자녀 관리 등 비물질적 지원 역시 부모가 많은 자녀를 갖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박휴용, 2014).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당연히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게는 출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적 동질혼을 통해 가용자원을 극대화한 고학력, 고소득층 부모들에 비해 이들은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지만 극심한 교육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중한 교육비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경쟁구도 아래에서는 고학

력 부모의 교육투자 양상이 저학력 부모의 교육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Leibenstein(1975)은 부모가 출산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인접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준거집단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출산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준경(2012)은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좇는 현상을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집단추종이 최근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따라가려다 보니 부족한 재원을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소비 지출마저 줄임으로써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출산력의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결혼시기를 늦추고 여성의 비혼 선택 가능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유배우 출산이 전체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결과적으로 유배우 기간과 유배우율의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출산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Basu, 1999; Isen, 2010; Requena & Salazar, 2014). 실제로 결혼 이후 연령대별 평균 출생아 수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고학력 여성의 경우 교육 기간, 직업탐색 기간 등이 길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져 그만큼 전체 출산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민현주, 김은지, 2011; 이삼식 등, 2005).

이 밖에 비혼 상태를 유지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해 유배우율이 감소할 경우에도 저출산 현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 우해봉(2012)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가임 기간 동안 비혼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유배우율은 2005년 58.7%에서 2013년 52.4%로 하락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만혼화로 인한 20대 여성의 미혼율 증가와 함께 30~40대 이상 여성들이 비혼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이삼식, 이지혜, 2014). 비슷한 맥락에서 이철희(2012)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여 과거부터 유배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만약 1991년 당시 유배우율이 2009년까지 유지됐다면 합계출산율이 2.3명 수준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요컨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만혼화와 비혼화는 출산력 감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포착됐지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 상태는 주로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3세 이하 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D'Addio & d'Ercole, 2005; Joëlle, 2003).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제3절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정의적 발달, 양육 방식 간 관계

형제자매 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자녀가 가장 바람직한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형제자매 수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형제자매 수가 달라지면서 아동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동아(only child)와 형제아(sibling child) 간의 교육 성취 또는 사회적 역량에서의 차이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이 점에 착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형제자매 수는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서안리, 정영숙, 2009),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상이한 교육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형제자매 수와 결부된 이 같은 효과 및 그 함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 발달 간 관계

형제자매 수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자원희석모형(resource dilution model)이다(Blake, 1981). 이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산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자녀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리는 자녀의 정의적 발달과 관련해서 주장되기도 하지만, 특히 인지적 성취에서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이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Zajonc(1975)는 자녀의 지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라면 2명을 초과하는 자녀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파한 바 있다. 기실 대다수 연구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인

지적 성취나 지적 능력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성취, 표준화 시험 성적, 내신 성적, 교육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에서 일관성 있게 목도되었다(Blake, 1981; Falbo & Polit, 1986; 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그런데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 발달 간에 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외동아 가운데 형제자매를 한두 명 둔 아동보다 성취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자주 목도된다는 사실은 적은 수의 형제자매는 경우에 따라 인지적 발달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Downey & Condron, 2004). 이러한 맥락에서 Zajonc & Markus(1975)는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 또는 막내의 경우 나아가 들수록 지적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 발달 간의 밀접한 부적 관계가 형제자매 수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진 특정 요인들의 영향에 기인한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Guo & VanWey(1999)는 형제자매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 특성을 통제했을 때는 형제자매 수와 아동의 지적 발달 간의 부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형제자매 수와 인지적 발달 간에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2. 형제자매 수와 정의적 발달 간 관계

형제자매의 존재는 개인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은 물론 의사소통기술, 자율성, 정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Falbo & Polit, 1986). 아울러 형제자매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역할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Azmitia & Hesser, 1993), 대인관계의 여러 측면인 협동, 갈등, 경쟁, 지배, 방어 등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김경희, 1987).[1] 이에 따라 형제아는 외동아에 비해 좀 더 협동적이고 끈질기며 또래들의 신망을 받기 쉬운 반면, 형제자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Jiao, Ji, & Jing, 1986). 유사한 맥락에서 Cameron et al.(2013)은 인구 억제를 위해 중국에서 1979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은 신뢰감이 낮고, 위험을 회피하며, 경쟁에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성실성이 떨어지는 아동들을 양산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성취동기와 주도적 성향 등은 강하지만 역할경험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 인내심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 사귀고 협상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구종, 조희정, 2010) 아울러 형제자매는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관계에 있지만, 상호 간에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김용미, 2016).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년기에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성 또는 사회적 역량의 부족은 학교생활에 의해 보완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owney & Condron(2004)은 유치원 취원 시점에서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동일한 집단이 초등학교에서 5년을 지낸 뒤에 다시 대인관계 기술, 자제력 등을 측정한 결과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가 사회성이나 사회적 역량에서 더 높은 향상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1) Yucel(2014)은 외동아에 비해 형제아가 누리는 인성 측면에서의 이점은 손위 형제자매보다는 손아래 형제자매를 갖고 있을 때 좀 더 큰 것으로 보고했다. Downey & Condron(2004)은 사회성이나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형제자매는 1명이면 충분하며, 추가적인 형제자매의 존재는 상호작용의 빈도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사회성 향상에 반드시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결과는 사회성이나 사회적 역량에 관한 한 학교보다는 가정의 영향력이 크고, 어렸을 때 발생한 사회적 역량의 결손은 이후로도 그 영향력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Downey, Condron, & Yucel, 2013).

반면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성이나 사회적 역량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미미한 차이마저 나이가 들면서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컨대 Riggio(1999)는 성인의 경우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전반적으로 인성이나 사회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다만 그에 따르면 외동아가 형제아보다는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은 있었다. Trent & Spitze(2011) 역시 친척들과 사회적 활동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인이 된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양자 간의 미미한 차이도 나이가 들면서 거의 해소됨을 보고했다. 중국에서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유년기에 '소황제(little emperor)'를 연상시키는 행태가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어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런 특성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다만 학교에 진학한 후에 외동아의 성실성에 대한 부모의 불만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목도되었다(Zhang, Kohnstamm, Cheung, & Lau, 2001).

국내에서는 박성연, 도현심(1993)이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자아개념과 사회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형제자매 수와 사회적 능력 간의 정적 관계를 밝혀낸 연구도 다수 있다(예컨대 김윤희, 강민주, 2010; 이현정, 조성연, 2002). 김병태(1998)도 협동성, 타인에 대한 이해, 자율성, 대인적응에서 형제아가 외동아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서안리, 정영숙(2009)은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에 적어도 사회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 도미향, 윤지영(2004) 역시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호기심을 제외하고는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2] 이들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형제자매 수가 아닌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Kitzmann, Cohen, & Lockwood(2002)는 학교에서 형제아와 비교하여 외동아들이 가까운 친구의 수나 친구관계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의 집단으로서 친구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외동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개연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존재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도 더 풍족하게 받기 때문에 정의적 발달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Hurlock, 1964; Falbo & Polit, 1986). 이러한 맥락에서 Shen & Yuan(1999)은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리더십, 성취동기, 친절함 등과 같이 성공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을 보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국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외동아가 훨씬 더 잘 내면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Wan et al.(2010)도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성취동기는 강하지만, 대인관계 기술이나 육체노동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양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

2) 도미향, 윤지영(2004)에 따르면 호기심은 외동아보다 형제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동아보다는 형제아가 가정에서 형제자매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유추되었다.

3. 형제자매 수와 양육 방식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을 일컫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느낌이나 추상적 태도 역시 양육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안리, 정영숙, 2009; 최경순, 1993).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외동아와 형제아가 상이한 양육 방식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외동아 어머니의 경우 애정과 관심이 지나쳐 과보호에 빠지기 쉬운 측면이 있고, 이 경우에는 아동이 이기적이고 인내심이나 자제력이 부족하며 의존적인 성격을 형성할 개연성이 크다. 외동아의 어머니는 아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큰 애정, 관심, 자원을 쏟으며 아동이 '슈퍼 차일드'가 되길 바라거나 실제로 영재 또는 천재라고 여기기 쉽다. 이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외동아가 딸이 아닌 아들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진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도미향, 김응자, 2005).

반면 형제아가 아닌 외동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과 성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주의와 애정을 받은 외동아는 형제자매의 부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보상받게 될 것이다(서안리, 정영숙, 2009). 다만 외동아가 형제자매의 부재에 따른 불리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보호나 지나친 기대를 삼가고 물질적 보상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도미향, 김응자, 2005).

한편 도미향, 윤지영(2004)은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고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부모의 양육 방식에

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동아가 여아일 경우 부모가 좀 더 성취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는 차이는 존재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하나뿐인 자녀가 여아일 경우 아들 못지않게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그 효과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o, 2001). 따라서 자녀의 수와 양육 방식 간의 관계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유교문화권이고 급속한 출산력 감소를 경험한 것이 비슷함에도 한국 어머니들은 중국 어머니들에 비해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과보호하고 성취에 대한 요구도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을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면서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어머니들은 국적과는 무관하게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를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아동의 놀이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안리, 정영숙, 2009).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은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과보호를 덜 하며, 일관성 있는 규제를 할수록 더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과보호를 심하게 할수록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국의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는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자율성, 대인적응성과 협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가 외동아의 사회성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치지만 형제아의 사회성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서안리, 정영숙, 2009).

제 3 장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 이해를 위한 모형 설정의 논거
제2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실제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정책적 함의

3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 이해를 위한 모형 설정의 논거

어떤 사회에서건 경제발전은 전통적인 자녀의 가치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발전이 자녀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은 감소시키는 반면, 자녀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자녀 가치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출산력을 떨어뜨린다. 경제발전이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편익을 작게 하면 할수록 출산력의 감소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이 자녀를 갖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을 크게 하면 할수록 출산력 감소가 더욱 두드러진 양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김경근, 1996).

한국 사회에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도시화,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교육수요의 증대 등을 통해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가치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는 생산적 노동력 제공자로서 자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이전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상승은 노동시장 밖에 있던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였다. 기본적으로 육아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보다 큰 기회비용(또는 상실소득)을 의미하게 되어 자녀를 많이 가질 유인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경제발전에 따라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커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수(quantity)를 질(quality)로 대체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Mincer, 1984). 한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던 뜨거운 교육열이 경제발전의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면서 출산력 변동이 훨씬 더 급속하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경근, 199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출산 간 관계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심에 자녀를 잘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성취를 거두게 하려는 심리적 에너지인 교육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열은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의 희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저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열은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상승을 통해 가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교육열은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자녀의 수를 제한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 역으로 저출산 역시 자녀의 성공이나 안녕에 대한 바람을 더욱 절실하게 함으로써 교육열을 직접적으로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출산은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교육열이 더욱 뜨겁게 발산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보아야 한다. 저출산이 자녀의 입신출세와 가문의 번창을 지향하는 공리적 가족주의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올인(all-in)'식 투자 행태를 유발하거나 '불안의 미만'을 심화시켜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경근, 2016).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열은 진공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받고 '문화생태환경'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산된다(이종각, 2002).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의 적절한 관리 및 승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고비용 자녀 교육 및 양육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 및 교육열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열이 자녀의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자녀 양육 방식 및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육열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발산될 수 있도록 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타당하고도 적절한 논거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교육열과 출산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시-거시 영향모형을 제시하고 그 논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실제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교육열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한편 복잡다기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불안의 미만(彌滿)'이 발휘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안의 미만'은 한국인의 두드러진 성격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윤태림, 1964),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강고한 가족주의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자녀의 미래나 안녕은 촌시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안의 미만'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제한적 기회구조와 상승 열망의 충돌에 의해 빚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변변한 부존자원도 없는 좁은 국토에서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가운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각박한 삶의 조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존전략으로서 교육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승 열망 또한 매우 강한 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 열망은 숱한 성공신화를 낳은 개발연대를 거치는 동안 더욱 강렬해진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육 경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쟁에서의 승리가 항상 담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김경근, 2016).

이처럼 기회구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렬한 상승 열망이 존재할 경우 실패나 낙오에 대한 우려는 필연적으로 '불안의 미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개발연대 이후 그간 한국인이 보여 준 삶의 양상 및 심리상태에 매우 잘 부합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상승 열망 자체는 적잖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열망이 약화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기회구조가 열악해지면서 '불안의 미만'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김경근, 2016).

이러한 제한적 기회구조와 이에 기인한 '불안의 미만'은 교육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교육은 가장 신뢰할 만한 생존 및 상승이동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적 기회구조와 '불안의 미만'에 의해 추동된 교육열은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안의 미만'은 집단추종(혹은 군집행동)을 통해 교육열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보육·교육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저출산을 조장하게 된다.[3]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집단추종은 주변의 친구, 친지, 동료 학부모의 자녀 교육 관행이나 방식에 자신의 교육실천을 조응시키면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한편 자녀를 적게 둔 저출산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녕이나 안전을 두고 일상적으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다른 가정의 부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안의 미만'을 경험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김경근, 2016).

'불안의 미만'은 교육적 동질혼을 매개로 교육열과 출산행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 수준이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을 일컫는데, 한국은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박현준, 김경근, 2012).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두드러진 교육적 동질혼 경향은 '자녀 성취 욕구'라 할 수 있는 교육열이 배우자 선택과 결합하여 나타난 일종의 '교육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급적이면 교육 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선택을 통해 자녀가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교두보를 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매우 강한 교육적

3) 집단추종은 위험이나 불안을 느낄 때 집단에 묻어가려는 행동을 가리키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목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집단추종은 다소 유별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안의 미만'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경근, 2016).

동질혼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김경근, 2016; 박현준, 김경근, 2012).

기본적으로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열의 소산이라 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것은 교육열을 가열시키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가 장차 전개될 교육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교육적 동질혼을 선호하도록 한다. 역으로 강력한 교육적 동질혼 경향은 장차 자녀가 결혼시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적 동질혼 경향은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학력주의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 학력은 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의 핵심적 준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주의가 한국 사회에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구한말 이후 기존 신분질서가 철저히 와해되면서 새로운 지배엘리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문제를 공교육체제를 통해 해소하는 과정에서 학력의 사회적 가치 및 효용성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김경근, 1998).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노동시장은 물론 결혼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강고한 학력주의와 함께 교육적 동질혼은 대학 진학 수요를 부추김으로써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와 저출산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아울러 공리적 가족주의 및 상승 열망 역시 교육적 동질혼 경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주의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제반 영역에까지 확대시키는 가치체계나 행동양식을 지칭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족주의는 국난에 처한 개인을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존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최재석, 1994).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생존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가족주의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공리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다(김경근, 2016). 최근 이 같은 공리적 가족주의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과 상승 열망에 의해 더욱 강고해져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대학 진학 수요를 부추기며 교육적 동질혼 경향을 강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리적 가족주의는 저출산 가정의 상승 열망과 결합하여 과도한 보육·교육비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많은 중산층 가정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근자에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목도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조기 참여와 지출의 폭증이 이를 방증한다. 2015년 4월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 지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3조 2289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5874억 원(22.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5. 4. 22.). 많은 기혼 가정에서 외동아만을 갖는 저출산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성적표로 여기는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올인(all-in)'식 투자 행태가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경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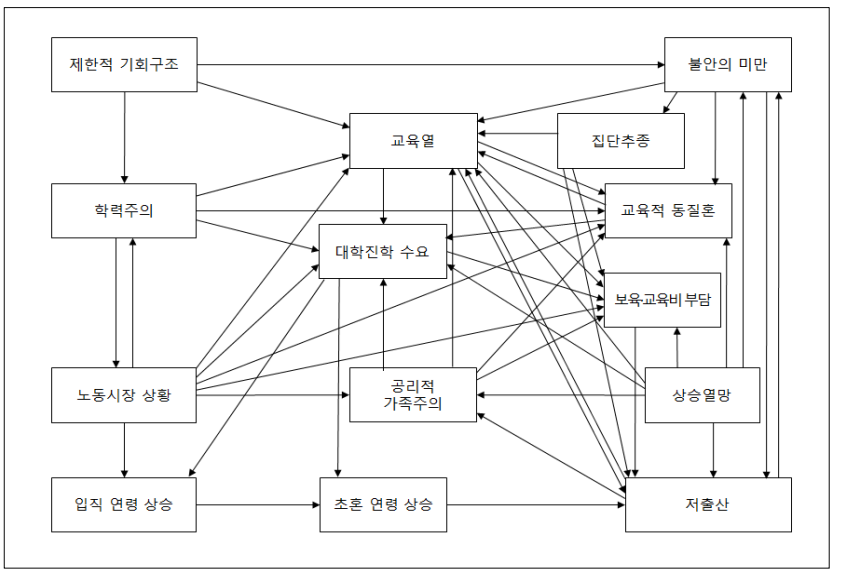
상승 열망 역시 교육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편 교육적 동질혼, 공리적 가족주의, '불안의 미만' 등을 매개로 교육열을 간접적으로 추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것은 자녀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통해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편 보육·교육비 지출 규모를 키우고 대학 진학 수요를 증대시키며 '불안의 미만'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효과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상승 열망은 구한말 이래 발생한 수차례에 걸친 계급구조의 철저한 와해에 따른 광범한 사회이동 및 광복 이후의 서양 문화 수입과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크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동, 1993).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 상황 역시 교육열이나 저출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승진, 보수에 교육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교육열이 가열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동시장 상황은 학력주의, 공리적 가족주의와 교육적 동질혼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와 저출산의 고착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세칭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한편 졸업을 미루는 현상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부모가 감당해야 할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자녀의 가치를 감소시켜 저출산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은 입직 연령을 높이는 한편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임 기간의 단축을 통해 저출산의 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래 [그림 3-1]에는 한국 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미시-거시 영향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 한국 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의 정책적 함의

앞서 살펴본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배경, 본질, 그리고 해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인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복잡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은 교육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녀 성취 욕구인 교육열은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

서도 자녀의 수(quantity)를 질(quality)로 대체하려는 의지를 유발함으로써 산아제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열은 자녀를 위해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보육·교육비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열은 대학 진학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을 높여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출산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육열의 약화는 저출산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하나의 생존전략으로서 한국인의 내면세계에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교육열이 단기간에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열은 한국 사회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 그것의 약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 되기도 어렵다. 아울러 교육열의 복잡한 형성 기제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결코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학 진학 수요의 억제를 통해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하락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개입은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는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보다 나은 입지나 보상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시장에 대한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열의 관리 또는 승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직결되어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주로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열이 강한 부모에게도 출산이 커다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자녀 교육 및 양육 방식을 정서적 지원에 의한 자녀 교육 및 양육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고자 하는 가정이 외동아를 키우면서 그 자녀의 교육 성취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좀 더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고자 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기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정신적 지원 중심에서 물질적 지원 위주로 확연하게 이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대가족 가정에서는 정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족했지만 경제적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대가족제도가 와해되면서 저출산 핵가족 세대가 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공리적 가족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해 상상을 뛰어넘는 '올인(all-in)'식 투자를 감행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의 자녀 양육 방식은 자녀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크게 높여 자녀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다른 계층의 출산 선택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는 이 같은 중산층의 행태가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 4 장 교육비가 출산에 미친 효과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4 교육비가 출산에 미친 효과[4]

제1절 연구 개요

최근 저출산의 원인[5]으로 높은 양육비가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최윤경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육아물가지수와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그림 4-1] 참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무상보육 등 보육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결과 육아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교육비도 양육비의 일부분으로서 최근 사교육비의 급증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20여 년 동안 대학 학비와 사교육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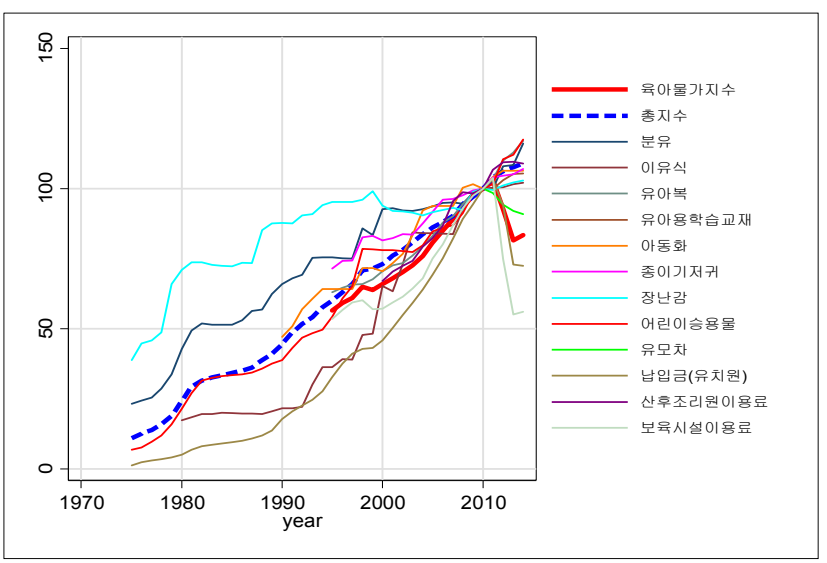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비 변화가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계변수 수준의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송헌재, 우석진(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송헌재, 우석진(2015)에서는 보육지원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율 및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효과를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작아 경제적 유의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그

4) 본고의 작성을 위해 자료 수집과 문헌 정리를 도와준 명지대학교 대학원의 김건욱, 변이슬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5) 이 밖에 저출산의 요인으로 미혼·비혼 여성의 증가와 기혼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그 이유로 꼽기도 한다(최경수, 2003; 김승권, 2004; 김두섭 등, 2007; 조병구 등, 2007; 최은영 등, 2005; 안종범, 2010).

러나 송헌재, 우석진(2015)의 연구에서 교육비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시계열을 이용하여 물가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윤경 등(2015)을 들 수 있다. 최윤경 등(2015)의 연구에서는 벡터자기상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을 이용하여 육아물가지수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물가지수와 출산율과의 음(-)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그랜저-인과하지는 않았다. 최윤경 등(2015)의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등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 4-1] 육아물가지수 변화 추이



출처: 최윤경 등(2015).
주: 2010년=100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물가지수. 한국은행 홈페이지(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문헌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Arellano & Bond(1991)와 Baltagi(2008)의 동

적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출산율의 경우 출산 행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여성의 출산 결정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문화 및 환경 등의 고정효과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의 자기상관과 고정효과를 동시에 추정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동적패널모형이 본 연구 질문에 있어 적절한 추정모형이라 판단된다.

제2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1. 연구 모형

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출산모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f_{i,t} = \Phi(p_{i,t}, Ecost_{i,t}, Y_{i,t}, Z_{i,t}, \xi_i; f_{i,t-1}) \quad \cdots\cdots\cdots\cdots (1)$$

여기에서 $f_{i,t}$는 자녀 수이다. $p_{i,t}$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중간재들의 가격 벡터, $Ecost_{i,t}$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다. 교육비용에는 취학 전 육아비용, 초·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소요되는 공교육 및 사교육 비용이다. $Y_{i,t}$는 가구소득이고, $Z_{i,t}$는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다. ξ_i는 자료상으로 관측되지는 않으나 출산 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불변 고정효과(time invarying fixed effect)이다. 지역의 출산력, 종교, 문화 등을 대표한다. $f_{i,t-1}$는 1기 전의 출산 결정이다. 위

모형은 Heckman(1976), Moffitt(1984), Walker(1995), 우석진(2008, 2010), 최윤경 등(2015)에서 설정하고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 모형의 단순 축약형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식 (1)의 모형에 따르면, 시점 t에 관측된 지역 i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품목의 가격인 물가지수와 그중에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소득과 특성이 영향을 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주지만 시점에 따라 변하지 않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고정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점의 출산 결정은 이전 시점의 출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준모형으로서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을 식 (2)와 같이 추정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p_{i,t} + x_{r,t}{}'\beta + u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quad (2)$$

출산의 자기상관관계와 고정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동적패널모형을 식 (3)과 같이 설정하였다.

$$y_{r,t} = \sum_{j=1}^{\tau} \rho_j y_{r,t-j} + \alpha p_{i,t} + \gamma z_{r,t} + x_{r,t}{}'\beta + \xi_r + \nu_t + \epsilon_{r,t} \cdots\cdots\cdots \quad (3)$$

$$r = 1,...,N, t = 1,..., T_r$$

위와 같이 동적패널모형은 시차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효과모형 추정방법을 통해 추정된 추정치가 편향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모형을 생각해 보자.

$$y_{i,t} = \beta_1 + \rho y_{i,t-1} + X_{i,t}\beta_2 + u_i + \epsilon_{i,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4)$$

고정효과모형 추정을 위해 식 (4)를 차분해 보자.

$$\Delta y_{i,t} = \rho \Delta y_{i,t-1} + \Delta X_{i,t}\beta_2 + \Delta \epsilon_{i,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5)$$

식 (5)의 경우 $\Delta y_{i,t-1}$과 $\Delta \epsilon_{i,t}$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y_{i,t-1}$과 $\epsilon_{i,t-1}$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rellano & Bond(1991)는 Holtz-Eakin, Newey, & Rosen(Econometrica, 1988)의 추정방법을 일반화하였다. Arellano & Bond(1991)가 제안한 추정방법은 이른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를 이용하여 식 (5)를 추정한 것이다. Arellano & Bond(1991)의 경우 외생변수(exogenous regressors)외에 기결정변수(predetermined regressors)도 적률조건(moment conditions)으로 고려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교육비가 출산에 미칠 효과를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측변수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 결정이라는 것이 식 (1)처럼 과거 결정에 따라 동적 함의를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출산의 시차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 (3)과 같은 동적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

2. 자료

동적패널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1985~2014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용하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으로 지역별 출산율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교육비 역시 편차가 존재하였

다. 또한 출산에 미치는 요소로서 모형 (1)을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내총생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혼인율 등을 고려하였다.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을 대표하는 변수로서는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1.386이었다.

〈표 4-1〉 기초통계량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산율	348	1.386	0.220	0.879	1.867
교육비	441	0.692	0.273	0.182	1.103
초등교육비	441	0.549	0.276	0.083	1.056
중등교육비	441	0.704	0.228	0.204	1.000
고등교육비	441	0.649	0.284	0.133	1.026
기타교육비	441	0.734	0.268	0.188	1.220
소비자물가지수	446	76.91	21.92	33.25	110.93
지역내총생산	461	14,674.31	10,776.58	1,543.00	63,402.00
경제활동참가율(여성)	256	50.24	4.10	40.80	63.60
혼인율(여성)	409	17.18	4.63	10.30	31.20

자료: 통계청(www.kosis.kr).

교육비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교육비 외에 하부 지수로 초등, 중등, 고등, 기타교육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는 유치원비를 포함한 납입금이 포함되었다. 중등교육비에는 중·고등학교 납입금이 포함되었다. 사교육비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교육 및 기타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학원 및 보습교육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원비,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전산학원비, 가정학습지, 이러닝이용료, 학교보충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세부 품목은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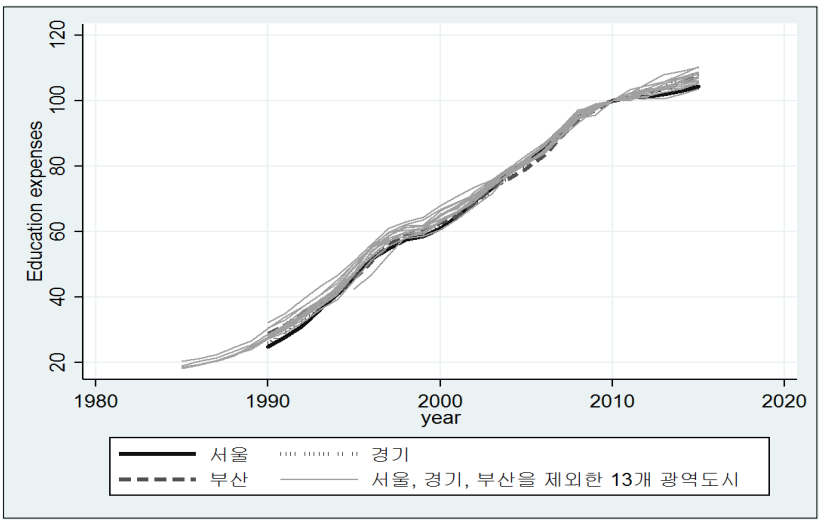
〈표 4-2〉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교육) 분류

품목별	세부 품목	
유치원 및 초등교육	납입금(유치원)	
중등교육	납입금(고등학교)	
고등교육	납입금(전문대학) 납입금(국공립대학교) 납입금(사립대학교) 납입금(국공립대학원) 납입금(사립대학원)	
기타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비(초등학생) 학원비(중학생) 학원비(고등학생)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전산학원비 가정학습지 이러닝이용료 학교보충교육비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운동강습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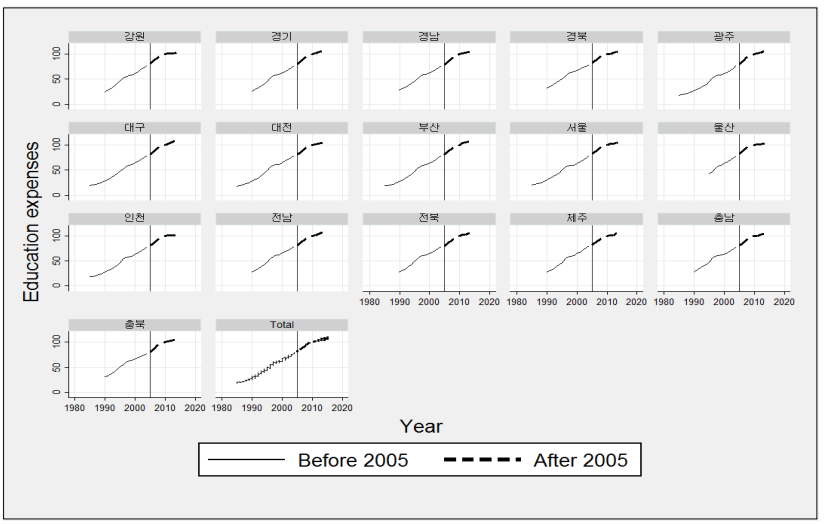
주: 통계청(www.kosis.kr).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

교육비의 지역별 변이는 [그림 4-2]와 같다.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0년 초기에는 20-30 수준이었다. 2014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10 정도 지수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림 4-2〕 지역별 교육비 추이



(a) 교육비의 추이



(b) 교육비의 지역별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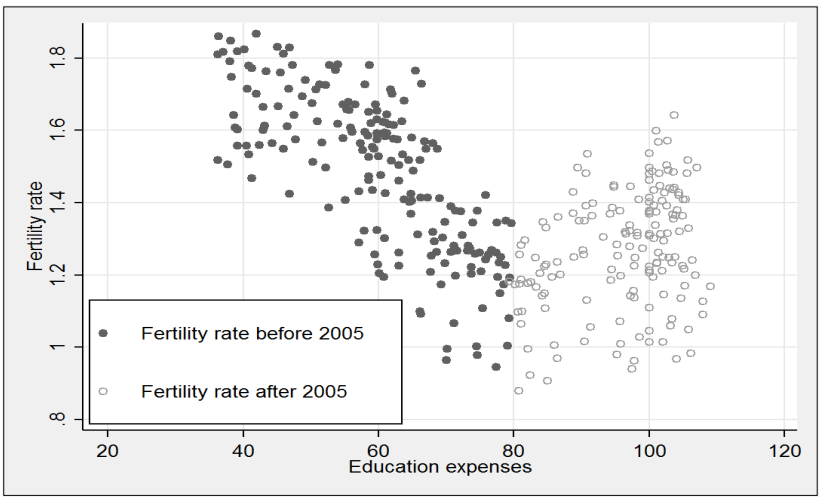
제3절 분석 결과

1. 예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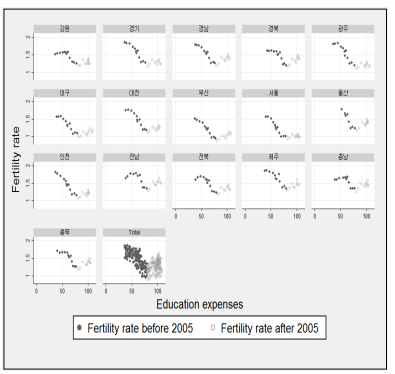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모형 추정에 앞서 교육비와 출산 결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자. [그림 4-3]는 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산포도를 이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단, 노무현 정부하에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2005년 이전은 실원으로, 2005년 이후는 가운데가 빈 원으로 표현하여 보여 주고 있다. 눈으로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2005년 이전에는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교육비용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패널 (a)).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가 2005년 이후에는 양의 관계에 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05년을 전후하여 두 변수와의 관계가 기존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패널 (b)는 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에는 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동일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는 2005년 이후에는 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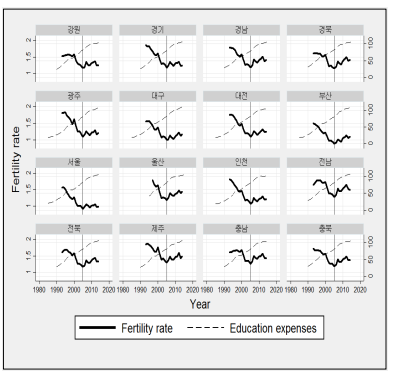
[그림 4-3] 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



(a) 전국



(b-1) 지역별



(b-2) 지역별

자료: 통계청(www.kosis.kr).

전체 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외에 학령기별 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산포도 역시 위의 그림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자세한 관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추정 결과

여기에서는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식 (3)을 추정하였다. 식 (3) 추정에 앞서 기준모형으로 식 (2)인 합동회귀모형(pooled OLS)을 추정하였다. 모형 (1)-(5)는 합동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 (1)은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종속변수로는 로그변환한 합계출산율을, 설명변수로는 로그변환한 교육비, 소비자물가지수만을 포함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 지역내총생산을 수준변수로 포함시켰다. 모형 (3)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을 로그변환하여 포함시켰다. 모형 (4)에서는 모형 (3)에 교육비와 2005년 이후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포함시켰다. 모형 (5)는 모형 (4)에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혼인율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 모형 (5)-(7)은 시점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경기순환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동적패널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의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합동회귀모형의 경우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력성의 크기는 -1.9~-2.8로 매우 탄력적이라고 보여진다. 예컨대 모형 (5)의 경우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2.7%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비 외 다른 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출산율과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거나 식 (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변수의 경우 모형 (5)의 소득탄력성은 양수로서 자녀가 보통재(normal goods)임을 보여 주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하지만 그 크기는 0.18로 비탄력적이었다.

출산의 시차변수와 지역 내 고정효과를 고려한 모형 (6)과 모형 (7)은

합동회귀분석모형의 결과와는 양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먼저, 출산의 1계 시차변수를 고려한 모형 (6)에서는 시차변수의 계수가 0.66이었다. 출산의 2계 시차변수까지 고려한 모형 (7)은 2계 시차변수까지 유의했으며, 1계 시차변수의 계수는 0.52, 2계 시차변수의 계수는 0.21이었다. 이는 한 번 출산율이 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시차변수와 고정효과를 고려한 동적패널모형에서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합동회귀분석모형에서 추정된 추정치의 절반 이하였다. 예컨대 가장 일반적인 모형인 모형 (7)의 경우 교육비와 교육비에 관한 출산탄력성은 약 1.0으로 단위탄력적이었다. 즉,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출산은 1% 감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형 (6)의 탄력성은 -0.996으로 거의 1에 가까웠다.

2005년 이후 더미와 교육비와의 교차항의 경우 0.735로 추정되었다(모형 (7)). 즉, 2005년 이후에는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음(-)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0.24 정도로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효과를 통제했을 때,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와 다르게 소득의 효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혼인율이 상식과 부합하는 부호를 갖게 되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때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성의 혼인율이 증가할 때 출산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송헌재, 우석진(2015)의 추정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표 4-3〉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합동 회귀 모형					동적 패널 모형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모형 1-6	모형 1-7
1년 전 출산율						0.662 ***	0.524 ***
						(0.0588)	(0.0745)
2년 전 출산율							0.205 ***
							(0.0678)
교육비	-1.901 ***	-1.971 **	-2.241 ***	-2.842 **	-2.711 **	-0.996 **	-1.004 ***
	(0.343)	(0.329)	(0.341)	(0.345)	(0.917)	(0.401)	(0.389)
교육비*교육비 더미 (2005년 이후 1, 이전 0)				0.219 **	0.109	0.722 **	0.735 **
				(0.0403)	(1.109)	(0.362)	(0.360)
소비자 물가 지수	0.0162 ***	0.0141 **	0.0168 ***	0.0182 **	0.0108	0.0118 **	0.0121 *
	(0.0044)	(0.0042)	(0.0042)	(0.0041)	(0.0195)	(0.0057)	(0.0062)
로그 지역 내 총생산			0.148 ***	0.166 **	0.182 **	0.0614	0.0457
			(0.0313)	(0.0303)	(0.0240)	(0.0669)	(0.071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141 **	-0.00143	-0.00108
					(0.0018)	(0.0015)	(0.0016)
여성 혼인율					-0.0332 **	0.0143 ***	0.0151 ***
					(0.0051)	(0.0038)	(0.0040)
지역 내 총생산		6.93e-06 ***					
		(1.23e-06)					
상수항	1.500 ***	1.597 **	0.278	0.348	0.635	-0.415	-0.421
	(0.107)	(0.104)	(0.278)	(0.268)	(1.361)	(0.587)	(0.629)
표본 수	348	347	347	347	240	224	224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시간 고정 효과					YES	YES	YES
광역 자치 단체						16	16

* p〈0.1, **p〈0.05, ***p〈0.01
주: 동적 패널 모형에서 (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임.

교육비 중 어떤 교육비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비를 하부 교육비로 구분하여 앞에서의 추정모형과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4-4〉는 학령기별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비는 대학

교 학비와 사교육비임을 알 수 있다. 초중등 교육비의 경우 의무교육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학교 학비의 경우 출산한 자녀의 장래 교육비에 대한 충분 통계량으로 기능할 수 있어 자녀 양육비의 중요한 대리변수가 된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는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사교육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가임기 여성에게 전파되지 않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학령기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동적 패널 모형			
	초등	중등	고등	기타
1년 전 출산율	0.588 ***	0.588 ***	0.564 ***	0.539 ***
	(0.0631)	(0.0651)	(0.0514)	(0.0829)
2년 전 출산율	0.214 **	0.197 **	0.227 ***	0.196 ***
	(0.0845)	(0.0790)	(0.0806)	(0.0715)
교육비	0.0683	-0.0999	-0.380 **	-0.416 *
	(0.111)	(0.202)	(0.162)	(0.231)
교육비* 교육비 더미 (2005년 이후=1, 이전=0)	-0.0134	0.0928	0.00774	0.460 *
	(0.135)	(0.169)	(0.214)	(0.255)
소비자물가지수	4.63e-05	0.00119	0.00302	0.00587
	(0.00470)	(0.00545)	(0.00554)	(0.00473)
로그 지역 내 총생산	0.0793	0.0640	0.0434	0.0767
	(0.0843)	(0.0777)	(0.0629)	(0.075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0.00204	-0.00190	-0.00156	-0.00154
	(0.00157)	(0.00165)	(0.00162)	(0.00170)
여성의 혼인율	0.0148 ***	0.0166 ***	0.0172 ***	0.0135 ***
	(0.165)	(0.00440)	(0.00409)	(0.00455)
상수항	-0.586	-0.431	-0.261	-0.575
	(0.726)	(0.666)	(0.513)	(0.670)
표본 수	224	224	224	224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YES
시간 고정 효과	YES	YES	YES	YES
광역 자치 단체	16	16	16	16

* p<0.1, **p<0.05, ***p<0.01
주: 동적 패널 모형에서 (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임.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식별전략으로는 지역별 교육비의 변화 추이가 다름을 이용하였다. 1985~2014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높은 교육비는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이전에는 그 크기가 작지 않았으나 저출산정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작아졌다. 이를 학령기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교육비가 다른 학령기 교육비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의 추정 결과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해 준다. 먼저, 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5년 이후 그 관계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비는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와 관련된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패키지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교육비용에 비교하여 사교육비가 포함된 기타교육비가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2014년 이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명 선행교육, 선행출제, 선행입시 등을 금지하고 하고 있는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법이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하나의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줘 정책의 사회적 혜택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제 5 장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연구 방법
제2절 교육 수준과 결혼이행 과정:
고학력화 추세를 중심으로
제3절 교육열과 저출산의 연쇄작용:
자녀 수 결정요인 및 양육 방식의 해부
제4절 소결

5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과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교육과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과 저출산의 관계를 양적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주로 저출산을 유발시키는 교육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접근은 교육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자녀보육과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행위 주체인 결혼 및 출산과 양육 당사자의 인식과 행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행 과정과 출산이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당사자인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교육과 저출산 관계에 대한 면담 내용

면담 대상	주요 면담 질문 내용
미혼자	• 개인배경(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가족관계 등) • 결혼 가치관(만혼과 비혼 사유 포함) • 결혼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교육 수준의 의미 • 결혼 후 자녀 출산 계획 • 저출산 극복 방안
기혼자 (신혼부부, 소자녀 부모, 다자녀 부모)	• 개인 배경(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결혼 연수, 맞벌이 여부 등) • 결혼관 및 결혼 과정 • 자녀 계획과 결정 이유 • 자녀 교육관 및 자녀 교육 지원 행위(양육 과정 및 사교육 내용 포함) • 자녀 교육 기대 수준 및 독립 시기 • 저출산 극복 방안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과 생애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제 중심적 생애사는 연구 참여자의 삶 중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경혜, 2005). 면담 시간은 일대일 면담일 경우에 1회당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집단 면담일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층 면담 방식은 면담 대상에 따라 '반구조화된 인터뷰' 유형을 사용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들을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담겨진 심층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핵심 이야기에 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맥락과 경험에 대한 해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확보한 면담 자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및 수정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귀납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범주 확인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다(Merriam, 2009). 연구자는 1단계로 수집 혹은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질문의 해결을 위한 분석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로 자료 읽기 과정에서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을 메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전사자료 파일에 직접 워딩을 하거나 인쇄된 자료에 추가로 메모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자료에서 논리적 일치와 차이를 찾기 위해 코드와 메모를 비교하고 범주 생성을 위하여 코드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범주들 사이에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제를 생성한 다음에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먼저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중 1~2명을 후속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과 신빙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적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자료의 전사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에 있는 5명의 연구보조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질문과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교육과 저출산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결혼이행 과정과 출산이행 과정의 당사자인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을 반영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 기반 선정(criterion based selection)을 기초로 '고유 표본 선정(unique sampling)'과 '눈덩이 혹은 연쇄적 표본 선정(snowball or chain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미혼자와 기혼자를 섭외할 때,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한정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먼저 결혼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 대상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직접 섭외하기도 하였고, 주변 지인들의 사회적 인맥을 활용하여 추천받기도 하였으며, 면담자들이 연구주제에 적합한 지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결혼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자로 최종 선정된 미혼자들은 25명이며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2〉로 정리하였다.

〈표 5-2〉 미혼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성별	출생 연도 (만 연령)	교육 수준	현재 직업	연소득 (전체 직업 경력)	비고
1	남	1982 (35)	석사수료	공기업 일반직	3,500만 원 (6년)	재혼 가정, 외동/이복형제, 지방 출신
2	남	1983 (33)	대졸	수행비서	3,800만 원 (8년)	양친, 4녀 1남, 창업 준비
3	남	1985 (31)	대졸	IT보안 개발	4,300만 원 (6년)	양친, 맞벌이, 1녀 1남, 지방 출신
4	남	1988 (28)	대졸	벤처기획관리	6,500만 원 (3년)	양친, 1남 1녀
5	남	1988 (28)	대졸	사립고 교사	3,700만 원 (3년)	양친, 1녀 1남, 지방 출신

사례	성별	출생 연도 (만 연령)	교육 수준	현재 직업	연소득 (전체 직업 경력)	비고
6	남	1990 (26)	전문대졸	요리사	2,100만 원 (3년)	양친, 외동
7	남	1991 (25)	전문대졸	항공물류관리	2,000만 원 (3년)	양친, 1녀 1남
8	남	1994 (22)	대재 2학년	대학생 (교육학)	없음	양친, 맞벌이, 2남 중 둘째, 재수
9	남	1995 (21)	대재 2학년	대학생 (가정교육)	없음	양친, 맞벌이, 2남 중 첫째, 재수
10	남	1995 (21)	대재 2학년	대학생 (언론미디어)	없음	양친, 2남 중 둘째, 재수
11	남	1995 (21)	대재 2학년	대학생 (영어통번역)	없음	양친, 맞벌이, 외동, 재수
12	여	1977 (39)	박사졸	연구원	6,500만 원 (2년)	양친, 1녀 2남, 장녀
13	여	1984 (32)	석사졸	IT보안 연구원	4,300만 원 (3년)	한부모가정, 취업모(교사), 2녀 중 첫째
14	여	1984 (32)	대졸	대학 행정직	2,900만 원 (6년)	양친, 1녀 1남
15	여	1986 (30)	석사졸	대학 연구직	3,000만 원 (2년)	양친, 2녀 중 둘째
16	여	1987 (29)	대졸	대학행정사무직	3,000만 원 (5년)	양친, 맞벌이, 1남 1녀
17	여	1989 (27)	대졸	공립중 교사	3,100만 원 (3년)	양친, 맞벌이, 2녀 1남, 쌍둥이 자매 둘째
18	여	1993 (23)	전문대졸	회사원	2,200만 원 (3년)	양친, 맞벌이, 2녀 중 첫째
19	여	1993 (23)	전문대졸	대학 행정직	2,300만 원 (3년)	한부모가정, 취업모(식당), 1남 1녀
20	여	1994 (22)	전문대졸	회사원	2,400만 원 (3년)	양친, 3녀 중 셋째
21	여	1994 (22)	전문대졸	회사원	1,800만 원 (3년)	양친, 맞벌이, 2녀 중 둘째
22	여	1995 (21)	대재 4학년	대학생 (영어교육)	없음	양친, 맞벌이, 1녀 1남, 대학원준비
23	여	1995 (21)	대재 4학년	대학생 (심리학)	없음	양친, 맞벌이, 1남 1녀, 대학원준비
24	여	1996 (20)	대재 3학년	대학생 (국어교육)	없음	양친, 1녀 1남, 임용시험 준비
25	여	1995 (21)	대재 2학년	대학생 (영어학부)	없음	양친, 1남 1녀, 재수

다음으로 출산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 대상자는 결혼 연수, 자녀 수 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결혼을 2~3개월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혼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출산이행 과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미혼자와 기혼자의 연결고리로서 의미 있는 경험과 해석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5-3〉 과 같다.

〈표 5-3〉 예비 신혼부부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장	연소득	가족관계	자녀 계획
신혼1	남	30	대졸	대기업	7,000만 원	양친, 외동	2~3명
	여	30	대졸	대기업	7,500만 원	양친, 2녀 중 첫째	2명, 딸 우선 희망
신혼2	남	30	대졸	대기업	4,500만 원	양친, 2남 중 첫째	무자녀 생각 있음, 2명
	여	29	대졸	대기업	4,000만 원	양친, 1남 1녀	2명, 딸 우선 희망
신혼3	남	32	석사졸	은행	4,600만 원	모친, 외동	2~3명
	여	24	전문대졸	교육기관	2,200만 원	양친, 맞벌이, 2녀 1남 중 첫째	2명, 아들/딸 희망

출산이행 과정에서 기혼자들로 선정된 유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4〉에 정리하였다. 유자녀 부모 면담은 주로 주 양육자인 엄마로서 아내인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다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과 교육 실천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수, 연령, 재학 중인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 연수는 10년 이상 부모 6명과 8~9년차 부모 6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부모의 개인 배경으로 학력, 직업, 소득 수준도 고려하였으며 특히 엄마의 취업 여부와 함께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포함되었다.

〈표 5-4〉 유자녀 부모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연령/학력/직업)	연소득	결혼 연수	자녀 수 유형 (연령)	재학 기관
1	여	45	대졸	결혼 후 퇴사 (회사원)	37/고졸/자영업	6,000만 원	11년	딸 1 (9)	초 2 (혁신초)
2	여	38	박사졸	상담교수	38/박사수료(미술) /프리랜서	5,000만 원	10년	아들 1 (10)	초 3
3	여	41	대졸	결혼 후 퇴사 (유치원운영)	45/대졸/대기업	9,000만 원	9년	아들 1 (7)	병설 유치원
4	남	45	석사졸	기간제 교사	37/대졸/ 학원운영	7,500만 원	8년	아들 1 (7)	병설 유치원
5	여	46	대학 중퇴	주 3일 근무	50/대졸/건축업	6,000만 원	9년	딸 2 (8, 7)	초 1, 국공립 어린이집
6	여	36	전문대졸	첫째 출산 후 퇴사 (회사원)	38/대졸/회사원	3,800만 원	8년	딸 1 (7) 아들 1 (5)	국공립 어린이집
7	여	36	석사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연구직)	39/대졸/대기업	8,000만 원	8년	아들 1(7) 딸 1 (4)	영어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8	여	41	대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직장 어린이집 근무)	44/대졸/회사원	5,000만 원	14년	아들 3 (14, 13, 11) 딸 1 (8)	중 1 초 6, 4, 1 (혁신초)
9	남	42	대졸	학교강사 교육대학원 재학 중	41/고졸/ 전업주부 (결혼 후 퇴사)	2,000만 원	12년	아들 4 (13, 11, 9, 7) 딸 1 (5)	초 6, 4, 2, 국공립 어린이집
10	여	44	고졸	결혼 전 퇴사	44/고졸(취업후 전문대졸)/ 자영업	6,000만 원	11년	딸 3 (10, 7, 5)	초 3 민간 유치원
11	남	35	대졸	회사원	35/전문대졸/ 둘째 출산후 퇴사 (회계사무직)	4,000만 원	10년	아들 3 (9, 5, 3)	초 2, 민간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사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연령/학력/직업)	연소득	결혼 연수	자녀 수 유형 (연령)	재학 기관
12	여	39	전문대 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어린이집 근무)	39/고졸/ 가업승계 고용 (영업 관리)	2,800만 원	8년	아들 2 (8, 4) 딸1 (6)	초 1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 교육열과 저출산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담 대상을 선정하였다. 다음에서는 가정 배경의 핵심 변수인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결혼 형태, 맞벌이 여부 등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양육자원 중에서 '인적자본'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반면에 두 자녀 및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교육 수준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열과 연관성이 높은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 수준이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박현준, 김경근, 2012)이다. 유자녀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 경향을 보면 대졸 이상의 부부끼리 결혼한 사례는 전체 12쌍 중에서 5쌍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3쌍의 부부는 한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두 자녀 부부와 네 자녀 부부도 있었다. 나머지 7쌍의 부부는 교육적 이질혼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 부모가 네 사례로서 교육적 이질혼 경향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높을수록 자녀 수를 적게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육적 이질혼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 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높은 부모는 적은 수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성취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교육적 이질혼 경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이나 지원 전략이 다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양육자원 중에서 '경제적 자본'에 해당된다. 유자녀 부모의 가계소득 수준을 연봉 6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집단으로 구분할 때, 한 자녀 부모의 가계소득은 모두 5000만 원 이상이며, 60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은 세 가정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부모의 가계소득도 6000만 원 이상이 두 가정이고 한 가정은 3800만 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의 가계소득은 5000만 원 이상이 두 가정이고, 나머지 세 가정은 3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 두 가정이며, 한 가정은 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정의 소득 수준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유자녀 부모들은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맞벌이는 두 가정으로 나타났고,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 중에서 맞벌이 가정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취업여성이 포함된 한 가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일곱 가정은 모두 전형적인 외벌이 가정이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수와 연령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 자녀를 둔 경우는 네 가정이었고, 두 자녀를 둔 경우는 세 가정이었으며,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경우는 다섯 가정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3살 이상부터 14살 이하까지이며,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는 한 명이고, 초등학교는 대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7살 이하 자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민간 유치원, 병설 유치원, 영어 유치원 등 다양한 보육 및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었다.

제2절 교육 수준과 결혼이행 과정: 고학력화 추세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대학 진학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진학률이 70% 이상을 넘어서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제한된 기회구조와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 수단으로서 대학 진학을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고학력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고학력화 추세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고학력화가 결혼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직 연령 상승과 만혼(晩婚)화의 실상: 결혼 시기 결정요인은 '일자리 상황'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이 낮고 사회 진출을 빨리 하면 결혼을 일찍 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졸 미혼 여성은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기 남학생들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저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저희 반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이제 남녀 합반이었는데, 저희 반에서 공부를 이제 제일 안 하던 삼총사가 있었어요. 남자애들인데, 껄렁껄렁하고... 못되게 굴지는 않지만, 그냥 말 잘 안 듣고.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걔네는 당연히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뭐 설비를, 기계 설비를 하는 이런 쪽으로 다 빠졌더라고요? 그 셋이 결혼을 제일 빨리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26, 25인데. 이게,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빨리 나와서 빨리빨리 하는... 정말 그 셋이 제일 빨리 했어요. 남자인데, 여자애들보다.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고졸인 케이스들을 저희 동창들을 보니까, 고졸이었던 아이들이

더 빨리 결혼을 하는 거 같고. 전문대 나와서 사회에 빨리 진출한 애들이 그 다음으로 빨리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어쨌든 더 길어지고, 높아질수록 더 천천히 하는 그런 흐름은 맞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흐름은... 그러니까 사회에 빨리 나온 사람이 결혼도 빨리 하는 거는 맞더라고요.(사례 16, 미혼 여성, 대졸)

이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가진 후에 25, 26살에 결혼한 간접 사례를 볼 때, 최종 학력에 따라 사회 진출 시기가 달라지고 이것이 결혼 연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결혼 연령은 사회 진출 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종 학력이 대졸로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결혼 연령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미혼자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이들이 첫 직장에 들어간 시기는 전문대졸은 20대 초반이었지만, 대졸자들은 주로 20대 후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교육 수준은 첫 직장에 진입한 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업, 박사졸업자의 입직 연령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볼 때 전문대졸은 대략 20, 21세, 대졸은 27, 28세, 석사졸은 29, 30세, 박사졸은 38세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학력, 즉 같은 전문대졸 혹은 대졸이더라도 성별과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입직 연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1988년생 대졸 남성들 가운데 사례 4는 IT 분야 중소기업 정규직 3년차이지만, 사례 5는 사립고 정규직 교사 1년차로 취업 연령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교육 수준은 취업기회와 일자리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결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 의향을 가진 미혼자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3 남성은 승진을 하면서 보수가 오르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 5 남성은 정규직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자 주변에서도 결혼을 권유하고 자신도 구체적인 결혼 준비로 주택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가, 보통 월급을 한 25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적금 넣고, 뭐하고 하니까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지원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 제 선에서 다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좀 더 벌어 보고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진급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이 되니까, 이제는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사례 3, 남성, 31세)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고 주위의 어른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하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자리도 잡았겠다. 결혼 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부터 해 가지고 막 중매 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3살쯤 돼서 결혼해야지, 그때도 늦은 나이는 아니니까, 요즘에 많이 늦어졌잖아요. (중략) 결혼은 해야 되겠다 또 이제 다시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전임이 됐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 작은 집이라도 사 놔야지 했는데...서울에 집이 너무 비싸서 집값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 또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사례 5, 남성, 28세)

이처럼 '결혼 시기'에는 취업 자체보다는 직장의 조건, 즉 안정성, 승진, 보수, 복지가 잘 갖춰진 일자리 여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 사례를 보면, 대졸자이고 신랑과 신부 모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다. 사례 1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사례 2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두 사례 모두 여성의 직장 경력이 5~6

년으로 더 많았고 남성은 1~2년차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들의 군대 경력과 취업준비 기간 때문인데, 여하튼 남성들은 28, 29세에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이들은 대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신부: 일단 전 제가 회사생활을 벌써 5년이나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사실 또 우리 부모님도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셨고, 또... 그래서 크게 사실 뭐, 결혼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큰 과제였지,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또 00씨네도 이제 00씨가 외동이고, 이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 주고자...

신랑: 지원은 전폭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부: 전폭적으로 해 주셔서 되게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 쉽게 남들보다 시작을 했고, 결혼준비할 때도 그래서 싸우는 적도 한 번도 없이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신혼부부 사례 1)

신부: 직장은 ▲▲카드. 지금 한 5년차, 6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단 자취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약간 부모님도 어차피 너 혼자 그렇게 살 거면 빨리,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 빨리 해라. 이런 마음이었고 이쪽 집안에서도 취업을 한 다음에 너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랑: 저는 지금 △△전자 다니고 있고요. 이제 입사한 지 1년 반 된 거죠? 저는 1월에 들어간 거니까. 1년 반?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거의 한 90%는 되거든요? (중략) 가까운 친구들, 대학교 뭐 그런 좀 패거리들 중에서는 아직 결혼한 친구들이 없어요. 서른이니까... (중략) 어차피 할 거면 뭐 일단 하면 되지, 뭐 굳이 끌 필요는 뭐 있냐, 라는 부모님 의견도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신부: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빨리 해야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가에서 그러니까, 상견례 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신혼부부 사례 2)

반면에 20, 21세에 취업하였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7 전문대졸 남성은 일자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懷疑)가 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근데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제 능력은 안 되고... (중략) 주 5일 근무도 새벽 출근을 해야 하고 초과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밤 10시, 11시가 되고 그러면 잠자기 바쁘고... 게다가 주말에도 격주로 주말근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 (중략) 뭐, 저희 집에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키웠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중략) 그래도 제가 그렇게 나중에 돈을 벌어서.. 물론 제가 매매로 집을 아예 사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음 매매로 집 사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전셋집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모아 놔야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사례 7, 남성, 25세)

전반적으로 전문대졸 학력으로 진입하는 직장의 현실은 근무환경과 조건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6명의 전문대졸 미혼자들 중에서 1명만 정규직이고 6명은 계약직이었고 연봉 수준은 1800만~24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요컨대 고졸이나 전문대졸 학력으로 진입하는 일자리의 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초혼 연령이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단(豫斷)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저출산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노동시장 조건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안에서 개인들은 고학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취업 및 결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 오고 연쇄적으로 가임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고학력 여성의 딜레마: 취업 필수, 결혼 선택 그리고 일과 결혼의 갈등

다음에서는 대학교육 수요 증가와 고학력화 현상의 심화가 여성들의 인식과 결혼이행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영향이 저출산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가.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

먼저 여성들에게도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필수이며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17 여성은 89년 출생이며 현재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취업은 당연'하지만 '결혼은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취업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결혼한 여성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경제적 독립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거에 비하면 결혼은 다른 의미인 거죠. 정말 선택이라고 생각해서요.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라고 되게 전부터 생각했어요... (중략) 지금 봤을 때는, 음... (결혼을) 하는 게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결혼이, 내가 결혼을 해서 더 나은 미래,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결혼을 한 미래가 더 좋아, 더 좋다면, 좀 좋은 미래가 그려진다면 하고 싶다, 라거나 해야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사례 17, 여성, 27세)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원 석사를 마친 사례 13 여성도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되묻기도 하였고 자신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이유를 찾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딱히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결혼을 했을 때 부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부담이라면 육아, 출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사례 13, 여성, 32세)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경제적 주체로 독립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그녀의 친한 친구들 역시 모두 대졸 이상 고학력자이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서 '평생 커리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오히려 '이상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보면, 좀 이상한 거는, 저랑 제 친구들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은 그런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냥 회사나... 그런 '남자사람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결혼하는 여자들을 보면 또 의외로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결혼하면 그냥 회사 다 그만두고 가정을 이루겠다. 실제로 많이... 세 명 정도 되는데, (한 분은) 원래 일하다가 '결혼하면 그만 두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분은) 결혼할 때는 여자 분이 직장이 있었는데 '임신하면서 그냥 그만뒀고'. 마지막도 직장이 결혼할 때는 있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서, 그냥 나는 그만두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남자사람친구들'을 보면... 뭐 맞벌이해야 된다는 친구도 있고, 내가 벌어오면 그냥 뭐, 아이 잘 키워 줬으면

좋겠다는 친구도 있고... 되게 좀 갈리는 거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비혼인 친구 두 명은 전혀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왜 여자한테... 그 친구들은 왜... 결혼을 해도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그게 좀 다른 거 같아요. 약간 좀... 특이하긴 했어요.(사례 13, 여성, 32세)

나. 일과 결혼, 출산과 육아: '경력 포기'와 '희생과 부담' 의 덫에 걸리는 것

사례 23 대학생 여성은 결혼과 커리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성장 경험을 볼 때 여성들의 삶에서 결혼은 여성의 노력과 희생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거기서 끝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자는 사실, 뭐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던 생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자는 그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나, 뭐 출산이나... 이런 거에서 여자들이 좀 더, 자기 생활에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를 감수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아빠보다도 엄마의 그런 쪽으로 열려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엄마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데서 이제 포기해야 될까 봐 아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사례 23, 여성, 21세)

사례 15 여성은 실제로 친구들의 사례를 목격하면서 과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懷疑)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직장'과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결혼생활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직장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의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독립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다면, 그것을, 결혼을 굳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저는 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화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한다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선택을, 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현재 직장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사례 15, 여성, 30세)

또한 20대 대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인식하면서 과연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엄마의 역할과 희생을 떠올리면서 결혼 자체를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님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엄마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포기한 적도 약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그래서 만약 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를 해 줄 능력이 없으면 제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사례 23, 여학생, 21세)

저도 결혼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크고 아직 좀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아직 되게 먼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막 그거를 하는 도중에 시간을 뺏기고 하면서까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교육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저도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왔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만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하시는데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바쁘시니까 제가 혼자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진짜 결혼하고 자녀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를 되게 몸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되게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사례 22, 여학생, 21세)

제가 애를 낳아서 저처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키워 낼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랄 때 말썽을 부리기도 했고, 또 세상도 좀 무섭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애를 키워도 잘못됐다, 이러면 굉장히 미안할 것 같고... 또... 걔가 태어나고 싶어 할까? 그런 게 없잖아요... 저처럼...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워 놓으신 거 보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제가 가끔 뭐... 원래는 몰랐는데 사람이 살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막, 나는 왜 사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끌어 주거나 이런 고민을 잘 해결해 주거나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고요...(사례 24, 여학생, 20세)

이처럼 20대 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성장 경험을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맡았던 어머니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인지를 더욱 크게 느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삶에서 결혼과 육아는 선뜻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담과 희생의 의미가 더 크게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는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서적 지원과 적절한 조언 그리고 시간적 배려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현실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체감하고 있었다.

다.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는 전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 찾기

한편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정의 가치도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례 16 여성은 일과 결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4번의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로 경력단절이 되는 주변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저 스스로도 좋은 엄마, 좋은 부인이지만 저 스스로도 제 일을 하면서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일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내 삶도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은 좀... (중략)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보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 것 중에서도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계속 몇 십 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찾으면서 여기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직을 많이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같아요.(사례 16, 여성, 29세)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커리어' 유지를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커리어'를 지키면서도 결혼이 가능한 직장, 즉 출산과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단절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립 중학교 교사인 사례 17은 육아휴직 보장이 확실한 교직의 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육아 휴직했을 때) 일 년은 돈도 나오고... 여러모로 교사는 그런 복지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긴 하죠. 거의 안 할 거예요... (중략) 그런 걱정은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력단절은 없고요. 제가, 본인이 그냥 그만두고 싶다, 가 아닌 한 타의에 의한 경력단절은... 제가 본 바 없고, 들은 바도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육아휴직도 굉장히 자유롭고 사실은 남교사도 육아휴직이 되니까... 하시거든요.(사례 17, 여성, 27세)

이처럼 미혼 여성들은 결혼보다는 '평생 커리어'에 대한 욕구를 우선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커리어와 결혼을 모두 선택하려는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직을 얻기 위해서라도 고학력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여성 고학력자의 패러독스: 괜찮은 일자리는 얻었지만 결혼에는 걸림돌

사례 12 여성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연구직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결혼 상대인 남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박사학력 자체가 오히려 결혼의 걸림돌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하길 바라셔서 소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을 한 번 뭐 이렇게 만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 같은 얘기를 해도 '그래 너 잘났다', 라든지... 약간 이렇게 편하게 막 대하지 않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박사건 나이가 이만큼 됐건 상관없이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사례 12, 여성, 39세)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지배 직종인 IT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 13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여자를 아

래로 두고 싶은데 여자가 더 잘난 경우에 남자(직장 상사 또는 남자 친구) 쪽에서 소위 말하는 후려치기(깎아내리기)를 하는 경우도 겪었어요."라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 저는 이제 약간, 주변에서는 저를 볼 때 되게 무겁다고 얘기하죠.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저를. 이 학부와 석사까지 하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무겁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뭐, 무겁다... 과분한 거 같다...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례 13, 여성, 32세)

이처럼 고학력 전문직 여성 중에서 남성보다 높은 학력과 학벌을 가진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혼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의 고학력은 양면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 전문직 남성들의 경우는 결혼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성들의 고학력화를 통한 전문직 경력 추구 과정은 혼기(婚期)를 놓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하는 사회에서 남성보다 소위 '잘나가는'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반드시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3. 교육적 동질혼 강화: 교육열 발화(發火)의 진원지

학력주의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의 핵심적 준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강고한 학력주의는 교육적 동질혼을 강

화시키고, 그것은 다시 장차 자녀가 교육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지원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열 발화의 한 형태인 교육적 동질혼의 실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적 동질혼의 전형(典型) 사례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교육열을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학력과 학벌의 의미: 인성과 능력의 일체 vs. 능력과 교양의 일부

사례 10 남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소질과 적성보다도 우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한국 사회가 좀 많이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바뀌지도 않을뿐더러,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것보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일단 시선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야 하나? 이 친구를 보는 선입견. 쟤는 공부도 잘하니까 담배도 안 피울 거고, 뭐도 잘할 거고, 뭘 하더라도 빨리 배울 거고... 라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아, 쟤가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을 거고, 뭘 하며 뭘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사례 10, 남자 대학생, 21세)

사례 10 남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결과로서 '대학' 진학은 인지적 능력은 물론 성실함도 보여 주는 객관적 증표로 인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양한 재능을 망라하는 베이스로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능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공부를 잘한 결과는 대학의 서열 수준으로 판별되기 때

문에 진학한 대학은 개인의 능력과 인성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사례 22 여학생은 상위권 대학을 다닌다 해도 대학 내의 모든 학생들의 능력과 인성을 동질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대학 안에도 다양한 학과와 전공이 있으며 비록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좋은 인성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볼 때, 객관적인 학업능력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인성이 객관적 선발 기준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학력과 학벌은 '공통된 주제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지적 역량이나 교양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저도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기대하는 건,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랑 대화 수준? 이런 걸 좀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팀플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 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과를 다닌다고 해서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력을 얘기할 때는 저랑 얼마나 소통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더 찾는 것 같아요. 인성은 이제 그렇게 알아가면서 또 새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사례 22, 여자 대학생, 21세)

나. 배우자 선택 조건: 비슷한 학력과 학벌, '맞벌이'에 함축된 의미

본 연구에 참여한 8명의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배우자의 학력은 최소한 '대졸'이고 전문대졸도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이에 덧붙여 '학벌'도 비슷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는... 대학은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대학이 있어? 라고 하는 대학보다

는, 선호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대학은 있어. 라고 하는 대학을 최소한 나왔으면 좋겠어요.(사례 10, 남자 대학생, 21세)

학력도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고... 네, 열등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런 분이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력 부분에 있어서 꼭 이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저랑 혹시나 비교를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가 캠퍼스 커플이신데 좋더라고요.(사례 22, 여자 대학생, 21세)

학력은 웬만하면 엇비슷했음 좋겠고, 왜냐면 친척 분들도 그걸 보실(거 같아요).. 무슨 학교냐, 계속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래서... 왠지 부모님도 약간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주위 시선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의식 할 수 있는 것 같고...(사례 25, 여자 대학생, 21세)

위에서 제시한 세 명의 대학생은 배우자 학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학,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사례 22 여학생의 이야기에는 학벌 차이가 나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학벌 콤플렉스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동등한 수준의 학벌을 가진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례 25 여학생은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학력을 갖춘 남성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미혼 남성은 노골적으로 '학력'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여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학력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업종, 근무시간이 일정한 직장, 시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언급하는 데서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나 고학력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일을 하는 게, 맞벌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게, 그래도...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배제를 시키면, 정말 인생은 긴데... 다시 사회 진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있으면 경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생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은 아닐 거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배우자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서로에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사례 6, 남성, 26세)

네. 그거는 지금 사회에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의,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지 사회생활 힘든 점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서로의 뭐랄까 누구 한 명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중략) 쉴 때는 쉬는 것도 좋지만, 같은 업종이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을 조금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둘이서 그냥 이제 꾸준하게 하면 굶고 살지 않진 않을까....(사례 5, 남성, 28세)

사실 뭐 딱히 생각한 거는 없었어요. 배우자 조건을 따로 생각한 거는 없는데, 저랑 비슷한... 가치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가치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가족을 꾸리면서 '시간'도 많이 쓰고 싶고, 뭐 그런 것들도 가치가 맞았으면 좋겠고. 또 일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 무조건 일하는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중략) 네. 그냥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같이 공부도 하고 싶고, 해외에 가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재밌을 거 같고.(사례 4, 남성, 28세)

이처럼 미혼 남성들에게 결혼 배우자의 '학력'은 현실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인적 자본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면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성취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례 4 남성의 언급을 보면, 전통적인 결혼제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을 고려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일상생활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요컨대, 남성들에게 배우자의 학력은 '현실적인 결혼' 조건으로 간주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교육적 동질혼의 전형(典型): 자녀 교육열의 세대 간 전승 과정

신혼부부 사례 1은 교육적 동질혼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된다. 신랑과 신부는 30세로 동갑이고 명문대 출신이며, 신랑은 대기업 근무 2년차이고 신부는 대기업 근무 5년차이다. 1년 여 정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랑은 ▲▲도 출신인데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하였으며 외동으로 자랐다. 신부는 △△ 출신이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 자매 중에서 첫째로 자랐다. 각자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 부부는 각자 가정 배경은 물론 신랑, 신부의 학력과 직업지위 그리고 소득 수준도 비슷하다.

다음은 이 부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신부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학업을 강조하셨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아빠랑은 사실 뭐, 공부를 좀 하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이랬던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빠는 조금 아빠식으로 뭐, 성적,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강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사실 공부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사촌들 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그래도 아빠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는 아끼지 않으셨고... 사실 뭐, 본인이 공부하신 걸 바탕으로 되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엄마는 진짜 거의 저희 그런 매니저. 그게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로드 매니저부터 해서 학부모회 이런 것도 하시고... 되게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던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것도 항상 알아보고, 학원 갈 때도 태워 주시고, 항상 제 뒷바라지 많이 해 주셨었고.(신혼부부 사례 1, 신부)

신랑의 경우는 교직에 계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의 돌봄으로 안정적인 학령기를 보낸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녀에게 강제로 학업을 강요한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양육의 어떤 부담 정도를 놓고 보면 전혀 뭐, 형평하지 않은 거였죠. 아빠는 항상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시고, 엄마가 항상 집에서 저를 키우시는 거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엄마가 있었어요. 저는 학원도 안 다녔고 하니까 항상 엄마하고 붙어 있었던 건데... (중략) 엄마가 그렇게 집에서 지켜 주면서 물리적으로 저를 그렇게 키우고 챙겨 줬다면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키워 주신 것 같아요. 아빠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도 아빠가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신혼부부 사례 1, 신랑)

신부는 자신이 대학입시 공부를 했던 때와 비교하면 요즘은 교육경쟁이 훨씬 치열하다고 듣고 있지만, 무작정 고액의 사교육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창시절에 공부를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저는 한국 교육 현실 물론... 그럼 요즘 뭐, 저희 세대랑 또 다른 게 제가 또 10년 지났으니까, 고등학교 나온지... 더 치열해졌다고는 하는데... 강남에서 안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대도시에, 부산에서 일반고를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그냥 정석처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EBS 열심히 보고, 어느 정도의 학원의 도움을 빌리면 충분히, 본인의 의지

만 있으면 공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때가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고... 환경적인 부분은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지, 본인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남편은 강원도 시골 그쪽에서 도심은 아닌 곳에서 자랐고, 진짜 그쪽에서 일단은 열심히 하니까 인서울 대학에 와서 그쪽 지역에 친구들이랑 좋은 문화를 겪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성적, 학습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신혼부부 사례 1, 신부)

이처럼 사례 1 신혼부부는 대도시와 소도시라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대졸 출신 부모님의 전폭적인 교육 지원을 받았으며 우수한 학업 역량을 발휘한 결과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하였고 대기업에도 취업한 상태이다. 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적어도 부모들의 학력과 학벌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신부의 경우 자신의 교육 수준에 대해 아버지가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신부: 기대치는 저는 조금 높은 것 같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좀 높게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고, 부담됐던 시절이 분명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신랑: 기대치는 높은 것 같아요, 둘 다.

신부: 일단 제가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소질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그래야 대화를 하든 자신이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신랑: 잘했으면....

신부: 잘했으면 하고... 부모만큼은 교육을 했으면 하고, 왜냐면 그게 본인이 행복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 엄마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네 인생이 편하다... (중략)그래서 좀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되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평생 공부는 해야 되고, 대학을 가서도 공부고, 또... 이제 취업을 할 때도 공부고, 취업을 해서도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신랑: 끝이 없는....

신부: 끝이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 공부가 싫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로로 봤을 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진짜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텐데, 네가 딱히 그런 거 없다면은 일단 공부를 해서 성적만 좋으면 사실 어느 과든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공부를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줄 것 같아요.

또한 이 부부는 자신이 공부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자녀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하였다. 신랑의 경우 자신들의 소득 중에서 한 사람 소득의 3분의 2 정도는 우선 자녀 1명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한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할 때 신부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만약 예체능을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비용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신부: 교육 같은 데 있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액의 과외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키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사교육 몇 가지? 본인이 원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도 해봤고, 사교육도 해봤는데...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좀 경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았어서... 종합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도 매달 반이 올라가고, 반을 유지하고 자극을 받고 공부했던 스타일이어서 괜찮을 것 같고... 저희도 애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고액의 과외에 그렇게 교육비를 엄청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신랑: 쓰게 된다면 막연한 생각으로는 한 사람 버는 거에 3 분의 2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한 아이를 생각했을 때... 진짜 최대로....

신부: 매, 매달 300인데?

신랑: 많이 쓴다면, 진짜 많이 쓴다면... 최대로 그 정도까지....

신부: 거의 미술 해야겠네... 그렇지 뭐, 애 미래를 위해서, 애가 또 예능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해 주었다. 외동으로 자란 신랑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약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려면 자신이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랑: 저는 부모의 역할을 생각을 할 때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택해서 스스로 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이로 치면은 스물이든 서른이든 더 늦게 되더라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고... 그,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고를 수 있도록 많은 세상을 보여 주고 거기에 맞는 적성을 찾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신부: 남편 될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애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학원이 가고 싶다, 이러면 또 지원을 해 줄 거고. 나이가 서른이 넘더라도.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해 줘야 되는데 만약 못해 주는 현실이 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처럼 교육적 동질혼의 전형(典型) 사례를 통해서 부모 세대의 공리적 가족주의 및 상승열망이 어떻게 자녀세대에게 전수되는지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모 세대가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교육열은 한국 사회에서 높은 학력과 명문 학벌 추구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의 헌신적 지원은 자녀 세대의 성공과 성취로 나타나고, 그 자녀들은 '교육적 동질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확고해지고 있었다. 교육적 동질혼을 통해 한층 강화된 자녀 세대는 미래의 자녀들에게 높은 교육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부모의 역량과 지원을 최대치로 쏟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수는 부모의 높은 교육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부모의 지원 규모와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자녀에게 최대 지원'이라는 선택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제3절 교육열과 저출산의 연쇄작용: 자녀 수 결정요인 및 양육 방식의 해부

1. 자녀 수 결정 과정: 한 자녀 계획 및 추가 출산 포기 요인

여기에서는 교육열의 소산으로서의 저출산 현상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 자녀 계획 과정과 추가 출산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 성취 욕구인 교육열은 자녀의 수(quantity)를 질(quality)로 대체하려는 의지를 유발시킨다고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큰 교육적 동질혼을 선택한 부부와 한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이 한 자녀만 낳고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저출산을 유발시킨 동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가. 경제적 요인

1) 자녀 출산 조건은 경제력

기혼자 중에서 처음부터 한 자녀를 계획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의 두 사례는 대졸 이상의 교육적 동질혼 부부이지만, 사례 2는 남편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치 않고 사례 4 남편도 불안정한 직장 사정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례는 현재 맞벌이 가정이며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사례 2 아내는 첫 아이를 친정어머니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하며, 장차 경제적 여건이 나아져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추가 출산 의향은 없다고 한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 정도를 원했고요. 남편은 뭐 많을수록 좋다. 둘, 셋까지도 원하고. 사실 현재도 둘째를 원하는데, 근데 뭐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계속 일을 하니까 계속 아이를 학업하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거의 친정에서, 친정이 바로 같은 단지에서 사세요. 그래서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친정어머니께 또 한 번 더 도와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일을 포기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자녀 계획은 하나로 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 같고. (중략) 만약에 제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랬다면 안정적으로 누구를 고용할 수 있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일단은 크긴 하고요.(유자녀 사례 2, 취업모)

사례 4 남편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힘든 취업 현실과 늦은 나이를 이유로 추가 출산은 어렵다고 한다. 10년째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남편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 환경에서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적 여건에서 양육할

수 있는 자녀는 한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들인 만큼 대학 졸업과 군 제대 후 취직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냥 한 명만 낳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랄까? 살기가 힘든, 사회생활을 해 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전망이 그렇게 맨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나이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는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으나 그 이후로는... 솔직히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하나만 생각하고 있고요... (중략)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이제 진짜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유자녀 사례 4, 남편)

이처럼 애초에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자 계획했던 부모 사례 외에 두 자녀를 키우는 사례 6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오남매로 자랐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 3명은 낳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외벌이 상태인 데다 두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겠지만 소득의 증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비가 커질 것이고 장차 두 살 터울의 두 자녀에게 들어갈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빠듯한 형편이지만 연금저축을 붓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커지는 교육비 부담을 위해 미리 저축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의 80%를 자녀 교육비에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오 남매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의지하고 사는 게... (중략) 신랑도 그래요, 저희 집은 여자만 넷이라 막 으샤으샤 하는 게 많으니까 부럽대요. 그래도 3명만 모이면 2명은 끌려오니까. 저도 3명 낳고 싶었어요. 근데 경제력이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둘째 태

어나고 1, 2년까지는 가계부에서 표시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4세 되고부터 식비고 교육비고 나가는 게 눈에 이만큼씩 보이니까 셋째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경제력 때문에... (중략) 그니까 지금 첫째는 7살이지만, 3학년 정도 되면 어휘, 그러니까 영어 하나 시키는 데도 지금 25만 원, 30만 원 못해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 때가 3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수학 하나 더 시켜야 되고, 과학 하나 시켜야 되고... 계속 연금 붓고 있는데... 사교육비로 연금보험 탈 수 있게, 교육비용으로. 제가 외벌이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한 달에 받는 월급의 거의 한 40프로는 교육비로 나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고 한 40은 보험료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으는 돈이 정말 희박하니까, 뭐라도 잡아 놔야지 그때 되면 한 10년 후 생각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내가 뭘 시켜주려면 부어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유자녀 사례 6, 전업주부)

2) 명문대 진학 수단이 된 사교육비, 커지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

이처럼 자녀 출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경제력이며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사교육비는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다를 수 있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교육 유형과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12사례의 가정을 볼 때,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컸다. 본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가장 높고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사례 3 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변 선배 엄마들의 영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례 3은 주변에 특목고를 보낸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듣고 7살 자녀에게 유치원을 보내는 것 이외에 '영재교육원'에서 일주일에 5시간씩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사고력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약 50만 원의 학원비를 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엄마들의 경험을 들려 주었다.

다들 잘하는 뭐, 의대를 생각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학을 끝낸다고, 고1 과정까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한대요. (중략) 무서워요. 근데 주변에 제가 □□를 다녀서 그런 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저하고 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는 혼자서 책을 보거나 할 때에도 주변에서의 그런 담소가 많이 들리잖아요?(유자녀 사례 3, 전업모)

사례 3에 의하면,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엄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확실한 교육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예컨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정한 부모들은 영재교육원, 영어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 수준까지 선행학습을 해 놓아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사교육비를 들인다는 것이다. 그녀는 유아기 때부터 이미 학교로드맵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둘째까지 낳아 교육을 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면담자: 영어유치원 비용은 이쪽에서 △△ 보내는 엄마들은 한 110만 원 정도?
연구자: 보통 영어유치원은 5, 6, 7세부터 가나요?
면담자: 그 친구, □□에서 같이 수업 받는 친구는 △△ 다니는데 6세부터 가던데요.
연구자: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를 다니고.
면담자: 그 친구는 훨씬 바빠요. 매일 영어유치원 가고 또 오후에 새끼학원이라 해 가지고 그런 학원을, 영어 학원을 또 간대요.
연구자: 그렇게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니고, 또 새끼학원 다니고, 뭐 또 태권도, 미술 등 다른 것들도 하면, 뭐 200만 원이 금방 넘어 갈 수 있겠네요.
면담자: 네... 그러면... 어떻게 둘째를 낳아요.(유자녀 사례 3, 전업모)

사례 3 엄마는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비는 들지 않지만 영재교육원, 킥복싱, 미술, 한글 교육 등에 드는 사교육비가 약 80만 원인 데다 학원에 가지 않는 시간에 주로 공연 관람, 도서관이나 박물

관 이용 등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처럼 명문대 진학을 바라는 부모들은 유아기 때부터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보육교육 환경 요인

1) 도우미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나라

다수 기혼자들은 직접적인 사교육비 부담 이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상황에 맞추어 편안하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미비한 점도 지적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지 못할 때 주변의 보육시설 활용만으로는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례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 사례 2 아내는 지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육아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려 주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부모 출퇴근 시 자녀를 맡기고 찾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회식이나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어린 자녀가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시설에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크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 좀 더 일찍 자녀를 귀가시켜서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려면 별도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같은 건물에 다 있는데도 8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애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애들이 3시만 되면 부모님이든 누가 데리고 와서 다 집에 가요... (중략) 원래 8시까지 할 수 있는데 다 가버리니까 내 애만

8시까지 거기서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든 친정엄마든 아니면 애 돌보는 사람이든 세시에 와서 다 데리고 가니까 어쨌든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도우미가 필요한 거고... 저 혼자서 키우긴 어려운 상황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신혼부부 사례 2, 아내)

유자녀 사례 2의 경우는 박사학위과정 중에 결혼을 하여 출산을 했는데, 학위 과정을 마치는 3년 동안 친정어머니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직장에 매이지 않는 상황과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운 좋게 첫 아이를 키웠지만, 또 다시 둘째를 낳아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음... 일단 저는 아이한테, 그 아이 초반 3년, 그놈의 3년(웃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시기에 제가 소홀하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이한테. (중략) 물론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학업을 하면서도 계속 아이가 먼저였고, 다행히 친정어머님이 저랑 되게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믿고 맡기고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둘째가 만약에 있다면 또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에요.(유자녀 사례 2, 취업모)

사례 4 엄마는 자녀가 3살 때까지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였지만, 4살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내고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이 부모는 친인척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키우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1시 이전까지 시간이 있고 기간제 교사인 남편은 퇴근 시간이 일러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그나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적으로 회사에 매여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조부모나 육아 도우미의 조력이 있어야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이야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커서 그렇지만 (지금도 갑자기) 솔직히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이제 맞벌이 부부는 정말로 누가 돌봐 줄 수 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애가 아파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근자에도 조퇴를 쓰고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중략)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는 그나마 편하게, 맞벌이지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거지만 정말로 기업에 다니거나 어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아이 키우는 거는 지금보다 진짜 몇 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정말로 주위에 도우미나 할머니가 없다면 그냥 외벌이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유자녀 사례 4, 취업모)

이처럼 자녀 양육 과정은 부모가 가정에서 전업으로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태어나서부터 육아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양육비 부담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다 하더라도 부모가 맡아야 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의 업무 환경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 보육 및 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출생 후부터 순수하게 육아에 드는 기본 비용은 물론이고 양육에 지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육아 도우미 비용 등 실제적 지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운영 형태를 더욱 섬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24시간 매어 있어야 하는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자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타의든 자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특히 결혼과 함께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 여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례 4 엄마는 주변에 육아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자녀를 키웠던 시간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또 한 명의 자녀를 키울 자신은 없다고 한다.

3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3년 동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문화센터를 나가는 게 고작 일주일에 아이와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인거고... 어, 또 아이가 아프다거나 막 이럴 때,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온전히 24시간 365일 애하고 계속 붙어 있는 게 된 거죠. 어디 하루 한 시간 애를 맡길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아이가 아프거나 또한 아이가...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죠. 애 데리고 갈 데도 없는 거고.. 만약에 친정이나 시댁이 집 앞에라도 있었고, 옆 동네라도 있었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맡기기라도 하고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고, 오로지 남편하고 저하고 애 하나.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애하고만. 그 다음에 먹이는 것. 무조건 애, 애인 거지... 먹는 거... 그러니까 (육아)책도 보고, 책대로 익혀야 되고 책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이가 뭔가를 해도 포용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략)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엄청 큰 거고 솔직히 다른 아이들을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예쁘지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아이는 예쁜 아이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거죠.(유자녀 사례 4, 취업모)

마찬가지로 사례 3도 '육아서'를 원칙으로 자녀를 키웠던 첫 아이의 육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이도 첫 아이처럼 키워야 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키울 자신은 없다고 한다.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 이렇게 쓰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했는데, 계속 애기랑 이제 어쨌든 24시간을 붙어 있고, 제가 이제 모유만 먹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다라는 거를 책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해서 애한테 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모유 먹이는 그런 과정들도 되게 힘들었고, 이제 목욕시키고, 또 이게 잠을 너무 못 잤던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 가지고 초반에 젖을 물릴 때 애가 잘 안 빨고 배고파하

고 그럴 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는 좀 병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분유랑, 그렇지 않고 분유를 먹으면 모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안 하고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고... (중략) 둘째도 만약에 키워야 된다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유자녀 사례 3, 전업모)

사례 3 엄마는 육아서 지침에 따라 '모유수유'와 '3년 엄마 육아'를 실천하는 데 집중하였고 자녀가 5살이 되면서 드디어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외에도 늘 자녀를 데리고 모든 일과를 함께 보내고 있었다. 매일 유치원을 오고 가고 일주일에 두 번은 영재교육원, 일주일에 한 번은 미술학원,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킥복싱학원 등을 동행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사교육 학원을 다니는 시간 외에도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가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녀의 24시간은 자녀의 그림자로 늘 함께하고 있었다.

(유치원 끝나면) 1시 반에 와서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놀거나, 또 대부분의 목요일 이럴 때는 제가 도서관을 데리고 가요. 끝나고 바로 이제는 가면은 거기서 책 좀 읽다가 놀기도 하고, 휴관 날에는 그냥 집에 와서 놀까 하기도 하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역에 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가고, 거의 매일 1시 반에 마치니까 좀 아무 것도 없는 날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는 어디 가고 싶다 하면은 가기도 하고....(유자녀 사례 3, 전업모)

그녀는 솔직한 심정으로 한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사교육비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한 자녀를 돌보는 데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첫 아이가 다니고 있는 '영재교육원'만 해도 그냥 자녀를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부모가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3시간 이상을 학원에 매

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예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학원에 와서 같이 3시간 이상을 보내는데 둘째 자녀에게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네... 그 비용이 한 70%라면, 30% 정도는 음... 만약에 둘째가 생겨서 얘네들을 그렇게 못 시키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나의 힘든 부분도 그 부분이 30%, 40%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둘일 경우에는 그런 데는 못 다닐뿐더러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있는 아이도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어린 아이가 계속 3시간 내내 거기서 같이 엄마랑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유모차 탈 때부터 왔었던 아이예요. 유모차에서 자기도 하고....(유자녀 사례 3, 전업모)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육아 스트레스는 물리적으로 투입되는 절대적인 양육시간과 함께 이에 동반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 환경이 상업화된 교육시설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엄마들은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자녀 연령에 맞게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하다 보면 엄마가 여러 명의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여러 종류의 교육기관을 다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벅찰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자녀 교육의 비교와 경쟁, '그래 낳지 말자'

한편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신혼부부 사례 2는 자녀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과 명문대 진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자녀를 낳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이지만, 현재 주택 대

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2년 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은 자녀 계획에서 혼자는 외롭고 두 명은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성장한 경험을 가진 아내는 과연 서울에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산다, 그러면 전 셋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서울에서 키우면 뭔가 애한테 이것도 해 줘야 되고 저것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저는 지방에도 살았었고 서울에서도 살았어서 약간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게, 주위에서도 많이 듣는 게, 애를, 뭐 애가 영어유치원에 다녀, 영어를 잘해, 그런데 내 애는, 내 애도, 영어를 못해, 근데 애가 영어유치원 가고 싶어요, 쟤는 저래서 영어를 잘하잖아, 이러면 애가 더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잖아요, 크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다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을까? 약간 경제적인 것도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내려가서 산다 그러면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사례 2, 아내)

그녀는 제주도 출신이지만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를 많이 느꼈다고 한다. 또한 직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동료들을 보면서 어떤 학원을 보내는가를 두고 서로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는 현실을 접하면서 자녀를 낳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얘가 계속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이런 거에서 커간다는 게 어쨌든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아이와 나. 약간 그런 부분이... 저도 겪었으니까 애는 그런 걸 안 겪으면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 크고요. 그게 아무래도 심하니까. 그리고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애들끼리 너 휴가 때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나 어디 필리핀 갔다 왔어, 그러면 어 난 저기 미국 갔다 왔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엄청 자랑을 엄청....(신혼부부 사례 2, 아내)

이처럼 가정환경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성장 경험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 현실은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다고 한다.

남편: 우리나라는 길이 너무 좁으니까...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나오면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길이. 외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데로 가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를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 꼭 대학에 가는 길?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냐 안가냐, 두 개의 옵션이면 여기는 대학에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정말 뭘 하는 길이 있고, 이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좁으니까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뭘 하든 간에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분야가 뭐든 상관없이.

아내: 대학도 스카이... (중략)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남편: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있기는 있거든요. 굳이 애를 안 낳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어차피 애가 그렇게 고생할 거라면... (중략) 이 흉흉한 세상의 더러운 꼴을 보여 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애를 굳이 안 낳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지 않을까?(신혼부부 사례 2)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신혼부부 사례 2는 평범하게 둘 정도를 낳아서 키워야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한 고민과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차 자녀를 낳아서 극심한 교육 경쟁을 겪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이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로 가시화된 사회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녀

를 낳고 키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 개별적 특성 요인

다음은 부모의 개인적인 성장 경험 때문에 '한 자녀만 낳아서 잘 키운다.'는 계획을 갖게 된 사례이다. 사례 1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결핍'을 자녀에게는 남겨 주고 싶지 않으며, 남편의 경우도 부모 이혼 후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가족과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물질적 지원의 결핍을 그들의 자녀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한 자녀'에게 집중 지원하는 양육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아서 집중해서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3녀1남 중 둘째로 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었는데 내 아이한테만큼은 제가 느낀 결핍을 느끼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 결핍에는 관심이나 사랑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물론 포함이구요... (중략) 제 신랑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신랑은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셔가지고 다 각각 또 재혼을 하셔가지고... 친할머니 밑에서 거의 혼자 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유자녀 사례 1, 전업주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자녀 출산 계획과 추가 출산 포기 사유에는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 보육·교육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울러 미시적 맥락에서 개인이 처한 개별적 특성에서 비롯된 요인이 자녀 출산 계획과 양육 과정에 영향을 미

친 사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은 거시적·미시적 맥락을 토대로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출산과 양육 방식 자체가 결혼이나 교육제도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거시적 환경 구조로서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그 연관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 한 자녀 중심과 두 자녀 이상 양육 방식의 특징 비교

앞 절에서는 자녀 수 결정 과정과 추가 출산 포기 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보육·교육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육과 저출산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육열 발화의 초점 집단으로서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교육 실천 행위와 저출산 간의 연관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자원으로서 인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자본이 자녀 수를 매개로 어떻게 지원되고 분배되는지의 양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가. 양육자원의 올인(all-in)식 투자: 한 자녀 중심

1) 자녀 성취 교육 열망의 분출: 집단추종과 불안심리 증폭,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

사례 3 부모는 소위 '교육열이 센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자녀 교육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주변 선배 엄마들은 한결같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구체적인 학교 로드맵을 갖고 있었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사교육 정보를 찾아

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에 살고 있는 친오빠도 자녀에게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갖고 '조카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거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식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영재교육원'에서 만나는 6명의 또래 친구들이 모두 '외동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지만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게 와서 키우다 보니까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언니들은 애가 중학교는 어디를 가서,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서, 대학교는 어디, 이렇게 그런 라인을 그렇게 해 놨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중략) 주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해 줘 봐.' 그런 이야기에 자꾸 귀가 열리는 거죠... (중략) 강남에 사는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도 조카가 의사가 돼서 뭐 뇌의학 쪽으로 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중략) 남편도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없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유자녀 사례 3, 전업주부)

그녀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도 빈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여러 번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제가 여기에 와서 '와, 빈부 격차가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는 집값도 너무 현저히 비싸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해도,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갔었던 여행과 이 사람이 가는 여행과 질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중략) 저도 다 똑같은 걸 다, 이제 사람들이 외식도 하고 살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다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버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우린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을 살고 있는 거 같다고 내가, 여기서 안 살면은 이렇게 안 살 것 같다고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자녀 사례 3, 전업주부)

그러나 그녀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높은 수준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질 좋은 사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주변 엄마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남아 있게 된다고 한다. 결국 남들도 하니까 당연히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사교육을 시키게 되고 막연하지만 '하나라도 더 하면 낫겠지'라는 기대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얘가 나중에 삶을 살 때 정말 이제는 질도 좀 있어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펜션 그냥 이런 데 놀러가도 좋았는데, '어 리조트 가보니까 더 좋네. 호텔가니까 진짜 좋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험치가 자꾸 쌓이면서 얘네들도 나중에는 조금 자기가 만약에 그만큼 즐기지 못하고 못살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자꾸 경험을 시켜 주면 좀 더 좋겠지 하면서 시키는 것 같긴 해요.(유자녀 사례 3, 전업주부)

한편 사례 1 엄마는 자녀에게 명문대 진학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녀는 학력과 학벌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지원하는 대신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녀 교육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절대 조력자이고 투자자이며 평생 파트너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합니다... (중략) 경제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한 계속이라고 생각하구요.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정확한 플랜과 비전을 보인다면 적극 지원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성장한다면 의존적인 성인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독립적으로 실천할 것 같아요. 만약 도움을 요청한다면 파트너나 투자자의 개념이 아닐까합니다.(유자녀 사례 1, 전업주부)

2) 차별화, 명품화 추구: 최고의 시설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의 모든 자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도 '최고와 명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례 4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기관보다는 소위 '평판'이 좋은 교육기관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1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6배나 비싼 60만 원을 주고 민간 유치원을 보냈다고 한다.

음, 세 살 때까지 집에서 키울 때는 먹는 거, 그러니까 세 살 때까지 이유식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는 그 정말, 정말 개인적인 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살 때 어린이집 갔을 때는 보통 국공립을 보내면 비용이 안 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이를... 국공립은 아니고, 평이 좋고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온전히 보조를 못 받는 곳에... 보내게 돼서 어린이집에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그냥 기관비만 그렇게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세 때는 내가 일을 하러 나왔고 그래서 아이를 종일반까지 사설유치원에 보내다 보니까 비용이 그냥 유치원비로만 50만 원, 근데 특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활비까지 들어가면 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집에서 홈스쿨했던 거, 이런 것까지 하면 아이한테 들어갔던 비용이 한 80에서 100은 썼던 것 같은데요.(유자녀 사례 4, 취업모)

사례 1 엄마도 '계획적 한 자녀' 키우기를 실천하면서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유치원 비용만으로 100만 원이 들었지만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였다.

서울로 이사 와서 유치원을 알아보는데 시설도 지하부터 5층까지 다 유치원 건물로 일단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고 1달에 2번 야외체험활동(숲체험, 박물관, 연극관람 등)과 천

연 간식, 유기농 우유, 직접 달인 홍삼 이런 것도 좋았어요. 교육내용도 매달 새로운 다문화 배우기, 노부영, 태글리쉬, 발레 등 다양한 배움 활동도 우리아이에겐 잘 맞았죠. 아이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어서 잘 적응한 것 같아요. 물론 유치원 비용은 100만 원으로 많이 들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좋았고 만족스러웠어요.(유자녀 사례 1, 전업주부)

또한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특별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례 2는 남편이 외국 유학을 했던 시기에 아내도 학업을 중단하고 자녀가 4살부터 6살까지 영국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7살 무렵 한국에 돌아와서는 유치원은 반일반으로 다니고 오후시간에는 매달 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3학년인 현재까지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 갔다 와서 뭐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그때는 한글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한글 능력을 올려줘야 돼서 일반 유치원을 갔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와서는, 이미 애들이 사교육을 다 시작했더라고요. 뭐 한글 다 뗐다 그러고, 수학 하고 있고... 근데 얘는 한글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빨간펜인가? 그거 한 3개월 했더니 그 나이에는 또 금방 떼긴 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유지를 시켜 주는 게 중요하니까, 영어 사교육비가 월에 한 50만 원 정도?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죠.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유자녀 사례 2, 취업모)

사례 3 엄마도 6살에 다니기 시작한 영재교육원은 웩슬러 지능검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해야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국어, 수학, 사고력, 사회, 과학수업을 한다고 한다. 사례 3 아빠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여 수학을 추가하였다고 한다.

6세 되면서 학원을 이제, 그 □□ 라고 그 영재교육원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가게 됐어요. 테스트를 보고, 이제는 뭐 몇 프로, 3% 아이들이 가 가지고 처음부터 3시간 수업을 하더라고요. 웩슬러 지능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한 번 가서 3시간 수업을 하는데 과목이 3과목을 해요.... (중략) 분기마다 달라요. 한 분기 3개월이잖아요? 한 번은 수학, 국어, 사고력. 또 다음 분기에는 사회, 과학, 사고력. 아이들 정원은 한 6명 정원인데, 그때는 좀 시기가 빨라서 그랬는지 2명, 3명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비용은 한 과목에 9만 원씩 해 가지고 27만 원이죠? 이제 교재비 3만 원. 30만 원이 되고, 한 달만 30만 원이고 다음 달부터는 27만 원이지. 네. 그거 하고, 7세까지 다니면서, 수학이 하나 더... 이제는 ○○ 아빠는 더 어려서부터 수학을 ○○한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7세가 되니까는 □□ 에서 수학이 따로 있더라고요.(유자녀 사례 3, 전업주부)

사례 1 엄마의 경우도 자녀가 흥미를 보이고 재미있어 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자녀의 모든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아역엔터테인먼트를 알게 되었는데 자녀가 관심을 보이자 연기학원을 다녔고 치어리딩팀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6살 때 몇 번 아역엔터(테인먼트)에서 명함을 받고 신랑과 의논하고 아이도 하고 싶어 해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집 앞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비용은 6개월 트레이닝비가 180만 원에 프로필 촬영비가 30만 원 이었어요. 그때부터 2학년까지 매달 30만 원 정도 트레이닝비가 들어갔어요. 뽀뽀뽀, ebs어린이 프로, 드라마, 영화보조출연 및 단역 등을 경험해 봤구요.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자기표현 방법 등을 키워 준 것 같아요. 1학년 때 우연히 치어리딩팀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하여 6개월간 연습생시기를 거쳐(이때 비용은 월 30만 원) 정식단원이 되었고 아시안게임 개막 공연 등 많은 공연과 대회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게 되었죠. 정식단원이 되면 공연당 5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고 대회 상금은 n분의 1로 받습니다. 근데 의상비며 이동 경비, 숙박비, 간식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유자녀 사례 1, 전업모)

나. 양육자원의 재구조화와 재분배: 두 자녀 이상

1) 가성비(價性比) 추구: 부지런한 엄마,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은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엄마들은 8명이었는데, 그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 명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업주부였다. 따라서 엄마의 취업 여부보다는 가계소득 수준과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사례 7은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가계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국공립 시설보다는 높은 비용이 드는 사설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사례 7은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1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과 요구에 맞는 최적의 기관을 선택하여 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깥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구요. 소풍을 간다던지, 견학을 간다던지, 그런 게 너무 없더라구요 여기 어린이집은. 그래서 그냥 유치원으로 옮기게 된 거였고. 유치원은 사실 다 좋았는데, 영어 유치원 설명회를 갔다가...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해서, 그리고 애가 영어를 좋아해 가지고...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영어를 좋아해서 1년쯤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바쁘죠. 태권도 가구요, 태권도 매일 가구, 미술도 다니구요, 일주일에 두 번 미술 학원에 가요. 나머지는 방문이 있어요... (중략) 태권도 11만 원 들어요. 미술 10만 원, 방문 6, 7만 원 정도인 것 같고.. 축구도 7만 얼마 한 달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중략) 갔다 오고 하면 6시 반 정도 돼요. 밥 먹고 씻고 좀 놀다가 자야하는...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고,

방문 두 개 하고, 미술을 하러 다녀요. 오빠가 했던 방문 선생님 오시니까 같이 오빠가 했던 거, 수업 그대로 두 개, 교원이랑 몬테소리하고 미술은 학원... 다른 학원... 아직 어려 가지고.(유자녀 사례 7, 전업주부)

그녀는 두 자녀가 각자 영어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3시 30분 이후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픽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진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들과도 더 많은 교류를 할 것이고 학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질 것이라고 한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교육 스케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가면 그야말로 바빠질 거 같아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부르는 것도 더 많은 거 같고, 학교마다 특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많이 부르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고. 그야말로 어머니들끼리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거 같고 하니까. 더 바빠질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애가 또 일찍 오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픽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더 없을 거 같긴 해요. 일찍 오는 게 큰 거 같아요. 점심만 먹고 오잖아요. 애들이.(유자녀 사례 7, 전업주부)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공부방, 방과후학교, 도서관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공립은 책값 식으로 해서 거의 한 4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그니깐 그거 받고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비용으로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한 번에 나가는 게 한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선인데,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을 꼬박꼬박 나가는 게 아니니까 대략 나누면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큰아이는 국공립, 둘째아이는 민간, 큰아이 6세 국공립, 둘째아이가 4세 민간을 다녔는데, 4세 민간을 다닌 아이가 더 많이 들었거든요. 특기비가 11만 원, 12만 원 들었고요. 차비, 차량비가 4만 원 들어가서, 좀 멀었거든요. 그 아이가 두 가지만 해도 15만 원, 16만 원이 드는 거예요. 큰아이는 특기비로 해서 한 4만 2천 원 나가는 게 다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둘 다 국공립으로 옮기니까 한 달에 특기비로 나가는 것만 둘 해서 10만 원 정도? 이거는 뭐 나가서 야외활동 가는 거는 그때그때 틀리니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유자녀 사례 6, 전업주부)

사례 6 엄마는 작년에 둘째 자녀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때 비용을 비교하면서 현재는 두 자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서 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녀의 적성을 찾아 주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비싼 학원을 보내 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복지센터를 활용하여 발레, 수영, 체육활동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즉, 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고 최대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면담자: 제가 그냥 집에서 학습지. 제가 직접 해 주는, 학습지 그니까 국어, 수학은 제가 직접 해 주고 예체능만 돌리고.

연구자: 학습지는 어떤 거를 사 가지고 그냥 어떻게..

면담자: 네... 문제지 사다가 풀어 주고 저는 아이챌린지를 지금 돌때부터 한 게 지금 5년, 6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단계별로 있어요. 매달 월 엄마랑 하는 학습지죠. 그걸로 계속 한글 떼고, 수학 떼고.

연구자: 큰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

면담자: 네, 돌 때부터. 그 무렵부터 그걸로 인성교육 이런 게 되니까 뭐 예절 교육이 잘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그걸로만 하고, 그런 학습은 제가 하고.

연구자: 그런 학습지를 사기만 하면 되나 봐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면담자: 제가 알기로는 월 3만 원 정도?(유자녀 사례 6, 전업주부)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사례 5 엄마는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돌봄 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세 가지인데 그것도 음악 줄넘기 하나 하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독서논술 하고, 파워로봇 만들기 하는 게 있어요.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월, 수, 금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끝나고 돌봄 교실에서 있게 돼요. 거기에서도 뭐 나름대로 활동을 해 주기는 하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건 좀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방과후 활동을 몇 개를 더 넣어 줬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죠... (중략) 한 달로 보면 3개월 하면 7만 원대거든요. 7만 5천 원에서 7만 9천 원? 그 사이인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어차피 별도이고. 그러면 한 달 하면 어차피 2만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뭐 그거야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학원에서는 보통 1시간 기준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1시간 반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을 학습을 하고 2만 얼마 정도 되니까 그다지 비싸지는 않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죠.(유자녀 사례 5, 취업모)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사례 12 엄마는 직접 지역 인터넷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엄마들끼리 '육아 품앗이'를 만들어서 첫째와 셋째 아이를 키웠고 둘째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네이버에 있는 카페를, 지역 카페를 통해서 이제 동네 언니들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그게... 우연이었는지, 인연이었는지 아이들 개월수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한 4개월 정도 느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2008년생. 그래서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육아 품앗이'를 해 보자. 그렇게 결성을 해서 5명이 이제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 준비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꾸준히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살까지는 그렇게 보냈고... (중략) 둘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빠 했던 육아 품앗이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

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화책에 관련된 독후 활동도 하고, 그래서 둘째는 도서관에서 2년 정도를 그렇게 다니다가... 4살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죠.(유자녀 사례 12, 전업주부)

한편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다섯 자녀를 키우는 사례 9는 사교육이 번창한 지역이 아닌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덜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 초등학교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성화 학교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1인 1악기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내: 다른 어머니들은 이것저것... 학습지며... 보습학원도 많이 보내고. 또 아이들 좋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는 개인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말 그대로 체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이...

남편: 악기나 도자기 이런 체험들이 애들 인성 쪽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저희의 교육마인드하고 부합하는 거 같아요.

아내: 그렇게 공부만 강요하지 않고, 여기가 예술꽃이래요. 예술꽃이라고 해서 악기를 다 하나씩... 그게 이제, 1, 2학년은 그냥 같이 해서... 뭐 리코더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만, 3학년 때부터는 개인 레슨을 해줘요. 그룹별로.(유자녀 사례 9)

사례 9 자녀들에게 유일한 사교육은 '태권도'였는데, 자녀 4명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수강료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부모는 첫째, 둘째 자녀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영재, 저기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을 작년부터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과학의 날 때, 4월 과학의 날에... 장관상도 받고. 미래창조과

학부 장관상,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발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둘째 아이도 ◇◇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실. 거기에 입학을 해 가지고 지금 방과 후에 거기를 다니면서... 큰 애는 영재교육원 다니고 태권도 가고. 둘째는 발명교실 갔다가 태권도 가고.(유자녀 사례 9, 남편)

2) 사면초가(四面楚歌) 속 부모들: 어려운 경제 상황, 높아진 학업 부담, 커지는 불안감 그리고 미안함과 죄책감

유자녀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변 학부모들과 자녀들과의 비교와 경쟁 때문에 좀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고 학교에서는 사교육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얘기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뭐, 1학년 2학년은 이제 쉽게 쉽게 가지만 이제 교과서,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그런 수준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걸 따라가려면 또 학원이네 어디네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엄마가 완전히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자기만 못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못하면 자기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유자녀 사례 5, 취업모)

사례 5 엄마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보면서 이미 학업 수준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바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아직은 자녀가 1학년이라서 학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

사실 정규과정은 3학년부터이긴 한데, 이미 하는 애들은 기본, 기초를 넘어서 이제 프리토킹이 될 정도의 수준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조바심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하지만 현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유자녀 사례 5, 취업모)

앞에서 유아기 때부터 영어 유치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꾸준히 노출시켜 온 부모들과 대조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질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진 다양한 사교육 기관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부담을 갖는 다자녀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의 국·공립 시설만 다녀왔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아이들의 수준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례 11 엄마는 주변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여러 종류의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아이만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힘들어진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먼저 '엄마 이것 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게 조금 어려워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는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를 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내년이면 이제 또 3학년에 올라가니까. 영어를 시작해야 된다면서 계획을 하고. 막 벌써부터 엄마들 하잖아요? 영어를 내년부터 꼭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아빠나 저나 둘 다 못하다 보니까, 저것만큼은 꼭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건 꼭 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이제 고민에 또 빠지는 거죠.(유자녀 사례 11, 아내)

이처럼 사례 11 엄마는 영어만큼은 제대로 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방과후학교 영어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형편상 비싼 영어 학원을 보내기는 부담이 되어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였지만 기대한 만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용상 저렴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도 보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뭐... 일단 막말 듣거나, 무시하는 말 듣거나...이제 상처받고 오고. 그런 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그게 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반은 있기는 하지만 기초반을 보면 뭐 몇 달씩 한 애들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신경을 쓴다고 하시겠지만 일단 애들하고 눈높이 맞춰 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안 좋게 평가되면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게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했어 하면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못하는 아이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유자녀 사례 11, 아내)

사례 10 부모도 자녀가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쉬게 해 주고도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엄마는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게 될까 봐 불안감이 생기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좀 놀게 해 주고 싶어도 그게 마음처럼... 확 놔지지는 않더라고요. 불안한 게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도 이게 딱 놓으면, 얘가 아무래도 1등을 하면 좋지만 억지로 안 되는 거고. 그 아이가 공부할 때, 너무 모르면 자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잘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뭔가 안 나왔더니... 그 전에, 학교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처음에는 재밌다고 그냥 즐겁게 했는데..., 애가 공부를, 그날따라 시험점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의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싶지 않다고.(유자녀 사례 10, 전업주부)

사례 8 부모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뒤처진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종합반'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매달 40만 원씩 내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한다. 더구나 내년에는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원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녀들의 학교 단계가 올라갈수록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였다.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웬만하면 사립대도 가지 말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 아이를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고모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학을 가고, 취업...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취업을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어머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을 잘해야 어쨌든... 이제 거기서 플러스해서, 제2외국어 잘할 수 있으면,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으면 그게 플러스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중략)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유학도 가야 되고, 영어가 이제 잘되지 않으면 이제 취업을 해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해서라도 진급과정에서도 그게 계속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영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들이... (중략) 항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 나와서 비전이 없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슬픈 거예요....(유자녀 사례 8, 전업주부)

사례 8 엄마도 주변에 가까운 친척과 교회에서 만나는 선배 엄마들을 통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절망하

게 된다고 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유학을 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녀는 더욱 심경이 복잡해진다고 한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바람이 크지만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무섭다고 한다.

엄마는 너희들이 그냥 한국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공부하고, 뭐 미국에, 물론 랭귀지 스쿨이라도, 엄마가 뭐, 꼭 보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내겠지만, 너희들이 원하면 보내겠지만... 엄마는 웬만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다 한국에서 터전을 삼고, 거기 안에서 같이 발전하면 좋겠다... (중략) 그래서... 좀 무섭기는 해요. 만약에 정말 내 아이가 한국에서 잘 학교를 못가면, 나중에는 진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 봐...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나?(유자녀 사례 8, 전업주부)

이상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에 더하여 교육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명문대 진학과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앞서가는' 부모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자녀 부모들은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심리적 압박감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부모들은 교육열을 부추기는 주변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더 높아진 데다 자녀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더해질 수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마땅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통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 같다.

다.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

앞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든 양육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육자원에는 부모의 물리적 시간은 물론 정신적 에너지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는 24시간 내내 부모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설령 자녀가 교육기관에 가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엄마 네트워크’ 교류를 할 개연성이 크다. 대체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거의 항상 ‘동시간대’를 보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례 3 엄마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한글과 영어 학습을 직접 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녀’만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육아의 경험을 마냥 즐겁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힘든 일’이라고 한다.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자녀 교육의 목표를 갖고 앞서가는 엄마들을 매번 접하기 때문에 자녀를 마냥 놀릴 수도, 기다려 줄 수도 없어서 늘 뭔가를 시키게 된다고 한다.

어떤 날은 연산을 좀 시켜야지. 그래서 어느 날은 조금 하자고 했다가. 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 지금 하면 뭐해 이랬다가도... 근데 또 다른 애는 벌써 뭐를 또 한다는데... 그럼 한글을 해야지... 그래요.

쓸 줄도 다 아는데, 형태가 잘 예쁘게 안 나오는 거죠. 크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에서 저랑 한글 쓰기를 저랑 해 보는데, 그게 규칙적으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얘도 스트레스. 그니까는 그런 학습 하면서의 지금 또 힘든 거는‘바르게 앉아라.’ 그래야지 글씨도 어떻고 어떻고 잔소리가 많이 돼서, 좀 요즘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기 싸움?

저는 영어는 우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조금 더 배워서 한국어를 잘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냥 영어를 DVD 보여 주고, 영어책 가끔 읽어 주고, 그 정도로 하고, 초등학교도 한 1, 2학년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3학년 정도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얘도 쌓였을 테니까 그 때는 레벨 테스트를 봐서 학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유자녀 사례 3, 전업주부)

이처럼 가정에서도 엄마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한글공부를 시키고 영어교육 시기에 대한 엄마의 교육적 판단을 근거로 영어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의 계획과 바람대로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방해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는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녀의 학습의지와 무관하게 엄마의 계획하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미지수이지만, 과연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더욱 불확실한 것 같다.

2) "그래도 둘째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틈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엄마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우선은 첫 아이에게 집중을 하면서 키우다보면 자연스럽게 둘째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다는 양육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물론 두 자녀 간의 성별, 연령 터울, 성격 등 자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들 간에 상호교섭이 일어날 기회가 빈번해질 때, 부모는 틈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동생은 언니바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언니는 착한 듯하면서도 너무 까칠해서. (웃음) 동생은 막 털털하고 터프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좀 여리고 따뜻하고. 그래서 언니가 좀

놀아주면 다 해 줘요. 동생이 오히려. '언니 이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줄게.' 이렇게 양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을 때는 정말 저렇게 잘 노는데 '형제가 없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유자녀 사례 5, 취업모)

사례 5의 경우는 특히 8살과 7살인데 딸들이라서 교육기관이나 사교육 활동을 할 때에도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엄마는 두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한 번에 두 자녀를 같이 챙길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성향과 재능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니가 미술을 하니까 '엄마 나 미술 할래.' 그래서 학원 앞에 데리고 가면 '아니야 엄마 나 8살 되면 할게.' 그래서 그것도 끝났고. 피아노 학원 언니 다니니까 같이 가서 '피아노 한 번 해 볼래?' 그러면 '아니 엄마 나 조금 더 있다 할래.' 그렇게 되고. 계속 이제 하고 싶다는 것을 데리고는 가 봤어요. 특공무술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체험을 시켜 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특공 해라.'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 초등학교 들어가서 할래.' 그러면서 그것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랑 둘이 체험을 시켰는데 언니는 뭐랄까 약간 발레하는 느낌의 유연함이라면 얘는 운동의 절도감 있고 힘이 있는 걸 보여서 사부님이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특공무술 좀 시키라고. 근데 본인이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얘가 뭘 좋아할까 해서 언니랑 같이 인라인을 시켰는데 처음엔 재미있다고 하더니 역시 한 달 정도 하니까 '엄마 나 안 하고 싶어.' 발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유자녀 사례 5, 취업모)

사례 6 엄마는 7살 딸과 5살 아들의 양육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이는 거저 키운다.'는 의미를 보여 주었다. 이 엄마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첫 아이를 위주로 양육하면서 둘째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두 명의 자녀와 동

시에 상호교섭하면서 직접적으로 첫째를 돌보면서 간접적으로 둘째에게도 적절한 관심과 훈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할래? 누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래?' 하고 싶데요. 그러면 시켜 주고. 안하고 싶데요. 그럼 안 해요. 이 아이는 정말 핸드폰이 하고 싶으면 핸드폰을 절대 못 하게 하면 못 자요. 그냥 이렇게라도 만지게 싶으면 그냥 만져 본 거로도 위안을 삼고 자는 아이거든요. 강제로 재워도 새벽에 울어요. 계속 울어요. 끝내 나가서 놀아 이러면 30분 딱 놀고 와서 푹 자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면 푹 빠져서 하나만 가르쳐줘도 그 하나도 블록 5개 줘 가지고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쌓아서 주면 이걸로 5~6가지 모양을 만들고, 엄마 이거 뭐 닮았지? 이렇게 나오는 아이니까 하고자 할 때, 툭 내뱉을 때만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책만 읽고 싶어?' 그러면 책을 막 몇 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 아이는 책 한 권이 너무 재밌으면 이걸 두 달, 세 달을 이것만 읽는 아이거든요.

그니까 이 아이 보다는 큰 아이를 먼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따라오고 보면서 '엄마, 나는?'하는 이런 질투심도 많이 생기고, '누나는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안 한다며?', '아니야, 나 할 거야.'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대부분 둘째 아이는 그냥 거저 키운다는 게 있고.(유자녀 사례 6, 전업주부)

이처럼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주로 첫째 위주로 돌보면서 둘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양육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자녀의 발달단계와 성향의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부모들은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양육 방식을 은연중에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힘들지만 부모도 같이 크는 것 같아요." 함께할수록 커지는 가족 유대관계

한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비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

는 부모들일수록 결핍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례 11 부모는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불리한 환경에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책 읽는 거. 그래서 태교할 때부터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전에 무조건 책 읽어 주고. 태어나서도 무조건 책 가지고 놀았고. 다른 거는 못 해 줘도.,, (중략)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빠도, 저도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하는 거. 책 보는 거.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게 하는데. 아빠도 대화는 일단은, 굉장히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유자녀 사례 11, 아내)

사례 11 엄마는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들과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녀들과 정서적 공감과 유대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성별이 아들로 동성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 놀이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장난감과 같은 대체 놀이수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자녀들 간에 놀이 시간은 사회성을 키우는 자연스러운 교육체험의 장(field)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난감은 첫째 때는 이제 시리즈 별로 다 사 줬어요. 첫째 밖에 없었고 하니까, 우리 양가 집안에서 더 난리였었죠. 다 사주고... 없지? 하면서 시리즈 별로 다 사 주고.

근데 둘째 때는, 글쎄요. 둘째, 셋째는 크게 (장남감을) 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케이블 TV를 아예 안 보게... 이사를 오면서 다, 웬만한 거는 다 줄였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뭐... 남자, 그러니까 딸하고는 틀리죠, 확실히 틀린데... 뭐,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기들,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 같아요. 아...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막 엄청 싸우고, 잘 놀고, 화해하고, 안아 주고... 그러더라고요. (유자녀 사례 11, 남편)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는 사례 9 부모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교섭 기회보다 자녀들 간의 상호교섭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간의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한다. 부부는 자녀들의 활동에 간섭을 하기보다는 개별 자녀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중재와 개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놀기도 잘 놀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건 있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엄마가 사실 먹는 거만, 채울 거만 채워 주면 아이들을 아이들끼리 놀아요. 카드 이런 거는 되게 비싸잖아요? 이런 거 사실 못 사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A4 용지에다가 40장을 그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밑에 애가 똑같이 그 40장을 그리는 거예요. 그 밑에가... 밑에가... 넷째까지도 그리더라고요. 그거를 글씨도 막 그려가면서. 이제 큰 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게 좀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둘째는 마음이 착해요. 셋째는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러니까 둘째가 좀 치이는 거죠, 말 그대로. 큰 애는 워낙 잘하니까, 형아 좋아. 이러는데, 근데 얘가 마음이 여리니까, 밑에 애가 치고 올라왔을 때 얘도 못 견디는 거죠. 내가 형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마다 중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금... 왜냐면 둘째만 편들기도 그렇고, 셋째 애도, 얘도 어떻게 보면 밑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사랑을 어떻게 보면 많이 못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마냥 혼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유자녀 사례 9, 아내)

사례 9 부부는 여러 명의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 규칙을 정해 놓거나 일상적인 규율 같은 것을 정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자녀들 중에서 어떤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녀가 생기면 굳이 부모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압적

방식보다는 자율적으로 좋은 습관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 주었다.

근데 이제 둘째가 좀 책임감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 가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깨워 달라고는 하죠. 깨우면 자기가 아침에 다 해 갖고 가거든요. 강요하지 않아서 아침에, 깨워만 달라고 하면 자기가 숙제며 이런 거는 알아서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어떻게 보면, 뭐... 해 줘야 되겠지만... 둘 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숙제를 해 가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행스러운 거는 큰 애가 욕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둘째도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큰 애가 그렇게 하니까, 둘째도 따라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끼리 속에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커 가면 커 갈수록 자기네 그게, 아이들끼리 형성하는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유자녀 사례 9, 아내)

이처럼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경험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 자녀들끼리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놀이를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이 키워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양육 방식을 통해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차원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울러 부모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그 역할이 좀 더 확장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 자녀에게만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자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특성을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비록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지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사례 9 엄마는 만약 자신이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 곳에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많은 자녀를 낳아서 키울 생각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목회활동을 하는 남편을 믿고 낯선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자

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청소년 분야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다섯 명의 자녀가 커 가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서로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부모로서 효능감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도,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겁이 났거든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걱정을 많이 했을 때, 그냥 이 청소년 쪽에... 뭘 할까? 하다가 청소년 이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크기 전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화낼 거라든가 덜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일도 일이지만 참 부모교육 같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같이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만들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큰다는 생각을 해요.(유자녀 사례 9, 아내)

제4절 소결

교육과 저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저출산을 유발시키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학력화가 결혼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직 연령 상승과 만혼화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으면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고 초혼 연령도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고졸자의 경우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이 빨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문대졸, 대졸 이상 미혼자의 심층 면담 결과, 교육 수준은 입직 연령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시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면담자들의 '결혼 시기'는 취업 자체보다는 직장의 구조적 현실, 즉, 괜찮은 일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학력화는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열망에 따라 추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만혼과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대학 진학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입직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력에 따라 차별화된 노동시장 조건과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결혼 연령과 시기' 자체는 언제 취업하느냐보다는 일자리의 질(質)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고학력 여성의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육 수요 증가와 고학력화 현상 심화가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취업이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은 '일과 결혼'은 지금의 현실에서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결혼은 여성에게 더 많은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에 '평생 커리어'를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20대 여대생들의 인식은 결혼 자체는 여성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

겁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고학력 여성들 중에는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과 결혼'을 양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고학력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고학력화를 통해 좋은 직장을 얻는 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라도 나이가 많아질 개연성이 크고, 더구나 최고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오히려 결혼시장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양면성을 띠어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일과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한 고민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열 발화(發火)의 진원지로서 교육적 동질혼의 실현 과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결혼 양태인 교육적 동질혼은 학력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열 강화를 초래한 원인이자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력과 학벌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의 인성과 능력의 종합적 지표로 의미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갖춘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맞벌이'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거나 출산과 양육을 마음 편하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력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녀 수 결정요인 및 양육 방식을 살펴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자녀 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 자녀 계획 및 추가 출산 포기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높은 부모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 출산은 부모의 경제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 부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만 키우고 추가 출산을 포기한 배경에는 주변에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추구되는 사교육 현실을 목도하면서 집단추종과 불안 심리가 증폭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에는 '육아 도우미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나라'인 현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인 경우에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며, 추가로 육아 도우미 비용을 감당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오롯이 혼자서 자녀를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키우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추가 출산은 힘들다고 한다.

한편 신혼부부 중에는 주변의 선배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 환경에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명문대에 진학해야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자녀를 낳아 극심한 교육 경쟁을 겪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든다고 토로하였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 자녀만 갖고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된 데는 경제적 요인과 보육·교육 환경 관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주의와 노동시장 상황이 거시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통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부모의 자녀 성취 욕구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 자녀 중심과 두 자녀 이상의 양육 방식의 특징 비교'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올인(all-in)'식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모든 양육자원이 한 자녀에게 전폭적으로 집중 투자되는 행태를 보인다. 특히 한 자녀에 대한 집중 투자를 부추기는 배경에는 소위 명문고와 명문대에 자녀를 보낸 엄마들의 경험에서 전해지는 자녀 교육 노하우와 사교육로드맵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증폭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인(all-in)'식 투자는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공하는 행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반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제한된 양육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와 재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부모들은 비용이 드는 교육자원을 선택할 때에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비용의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더욱 부지런히 다양한 양육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고 직접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국공립 시설을 주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복지센터, 공부방,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엄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육아 품앗이'를 조직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점차 학력이 높아지면서 학업에 대한 압력과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교육비'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은 자녀에게 충분히 적절한 사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목도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당장이라도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떤 부모들은 고비용의 사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부모로서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커지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 경험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로 이야기하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억지로 학습을 시키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앞서가는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학습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첫 아이 위주로 양육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지점

에서 부모의 양육자원이 산술적으로 배분되기보다는 한 자녀에게 집중 배분되면서도 다른 자녀에게도 동반효과를 가져오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다양한 양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 간의 상호교섭이 늘어나고 놀이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틈새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양육 전략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모들은 가정에서 더 많은 대화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독서시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였다. 주거 환경 자체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자녀들 간의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의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자녀 수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을 설명하는 '자원희석모형(resource dilution model)'에 따르면,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산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자녀의 질(quality)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Blake, 1981).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이 모형의 타당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은 단순히 보육과 교육에 쏟는 에너지를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캐나다에서 2-5세 유아 2,082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와도 궤를 함께한다(Strohschein,

Gauthier, Campbell, and Kleparchuk, 2008). 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에 부모는 자원을 희석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재구조화(reorganizing)하고 재배분(reallocation)함으로써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 양육 방식'을 제공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 양육 방식이 '자원 집중' 행태로 드러난 반면에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자녀 양육 방식은 '자원의 재구조화와 재분배'와 함께 관계자원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이라는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대안적 양육 모델로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놀이를 제한하고 자녀에게 억압된 학습을 강요하는 양육 방식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부모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자녀들이 도달하도록 닦달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칭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내적 호기심이나 욕구를 절제하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외부의 평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인이 되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닦달하게 된다(Ashner and Meyerson, 1997/2006). 같은 맥락에서 내재적 동기를 찾아내는 힘을 갖지 않고 좋은 점수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성적에 관한 압박감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고 한다(Bain, 2012/2013). 단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은 '피상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자'가 된다고 하며, 스스로 노력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심도 있는 탐구를 계속하는 '심층적 학습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변질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부모의 목표에 자녀를 맞추도록 하는 양육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녀 가족 형태는 가정의 '사회자본'이 풍부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핵심이 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제공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 돈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들과 함께 상호교섭을 하는 장면에서도 그 안에서 충분한 시간, 진정성 있는 애정, 그리고 합의된 전략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게 된다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들 간의 상호교섭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자녀들에게 돌봄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우애, 배려, 애정, 경쟁, 화해, 양보, 타협 등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인적·경제적·문화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환경일지라도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가 구축되어 사회자본이 풍부해진다면 자녀의 학업, 가치관, 태도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제 6 장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에 대한 종합적 논의

제1절 교육 관련 미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제2절 교육 관련 거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6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에 대한 종합적 논의

제1절 교육 관련 미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 미시적 수준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교육비 부담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교육비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비는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 이전까지 이 같은 연관성이 더욱 두드러진 양상으로 목도되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거시적 요인이 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통해 미시적 수준의 출산 결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그간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지만 저출산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을 막는 데 그것이 다소간에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비 가운데 어떤 항목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질적 연구도 교육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부분의 한 자녀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진 모든 가용자원이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업주부 가정에서 좀 더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비용도 문제이지만 거의 하루 종일 자녀와 붙어 지내면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야 하는 부담에 질려 둘째 자녀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교육열을 가열시킴으로써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공리주의적 가족주의가 주로 외동아 가정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교육 수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양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교육 수준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에는 부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도 유사한 시사점이 도출된다. 즉 교육 수준에 따라 여성들의 직장 경력은 질적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여성들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평생 커리어'는 결혼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문대 출신보다는 4년제 대졸 출신 여성에게서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노력도 미흡해져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로서 인성도 갖추고 출산과 육아 지원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에의 접근 가능성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야 출산과 육아 지원이 잘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스스로는 자기의 '평생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높은 교육 수준이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의 접근 가능성 때문에 결혼시장에서의 입지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교육 관련 거시적 요인의 출산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과 출산 간 거시-미시 영향모형에 포함된 대다수의 변수들은 거시적 요인에 해당한다. 미시적 요인인 대학 진학 수요와 보육·교육비 부담을 통해 저출산을 유발하는 교육열, 노동시장 상황 등이 대표적인 거시적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한국 사회의 제한적 기회구조와 이에 추동된 '불안의 미만'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은 교육열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 자녀만 둔 채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데는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 보육·교육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한 자녀를 둔 가정의 '올인(all-in)'식 자녀 교육 및 양육방식에서 드러나듯이 저출산이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그것이 다시 저출산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행태가 일종의 집단추종 현상으로 발현되어 사회전반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상술한 양육 방식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과도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을 2세에게 쏟을 자신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에 다소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특히 남성들)이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수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다수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꺼리거나 출산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 사이에서 좀 더 두드러진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20대 대학생들은 학력과 학벌 자체를 배우자 선택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배우자의 교육 수준으로 대졸 이상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학교와 비슷한 서열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젊은 대학생들은 대학의 서열이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을 함께 드러내는 객관적 증표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사회에 교육적 동질혼 경향이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교육적 동질혼은 교육열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수요를 부추겨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앞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과 그 작동기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시적 요인이나 거시적 요인은 독자적으로 출산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며 출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컨대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교육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로도 상당히 복잡다기하다. 우선 교육열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 있더라도 자녀 성취를 위해 자녀의 수를 자녀의 질로 대체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교육열은 자녀에게 투입하고자 하는 자원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려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열은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여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을 상승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낮추게 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많은 미시적 요인들이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시적 요인들과 거시적 요인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출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요인들이 온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시적 요인들만을 조작하여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난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긴 하지만 거시적 수준에서 한국인의 의식세계 및 관행을 출산 친화적으로 변개하려는 시도가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현재와 같은 출산행태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7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7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여 양자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과 출산 간 미시-거시 영향모형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매우 복잡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도 자녀 성취 욕구인 교육열은 자녀의 수(quantity)를 질(quality)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발함으로써 산아제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열은 자녀를 위해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보육·교육비의 한도를 높여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열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을 높여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출산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까

닭에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교육열의 약화는 저출산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열은 한국 사회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단지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 그것의 약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 되기 어렵다. 아울러 교육열의 복잡한 형성 기제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열의 관리 또는 승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녀의 수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한 양적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별전략으로는 지역에 따라 교육비의 변화 추이가 상이한 점을 이용하였다. 1985~2014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본격적인 모형 추정에 앞서 교육비와 출산 결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 이전까지는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목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2005년을 전후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기존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출산의 시차변수와 지역 내 고정효과를 고려한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여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교육비가 출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교육비에 관한 출산탄력성은 약 1.0으로 단위탄력적이어서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출산이 1%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출산율에 더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비를 하부 교육비로 구분하여 앞에서의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 중심적 생애사 접근을 통해 교육과 출산 간 연관성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미혼자의 결혼이행 과정에서 교육 수준의 의미를 고찰하고 기혼자의 출산이행 과정에서 자녀 계획의 선택 과정과 자녀 교육 실천 행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도 상승하지만, 실제로 결혼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단순히 고학력화 자체가 저출산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저출산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노동시장 조건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동시장 상황은 학력주의, 교육적 동질혼, 고학력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바, 개인들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안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입직 및 결혼 연령이 높아져 저출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고학력이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 자녀 계획 및 추가 출산 포기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자녀 출산은 부모의 경제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사교육비 부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자녀만 키우면서 추가 출산을 포기한 데는 주변에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추구되는 사교육 현실을 목도하면서 집단추종과 불안 심리가 증폭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에는 '육아 도우미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나라'라는 현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오롯이 혼자서 자녀를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키우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추가 출산은 힘들다고 하였다.

한편 신혼부부 중에는 주변의 선배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 환경에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명문대에 진학해야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자녀를 낳아 극심한 교육 경쟁을 겪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든다고 토로하였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올인(all-in)'식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모든 양육자원이 한 자녀에게 전폭적으로 집중 투자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올인(all-in)'식 투자는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공하는 행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반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제한된 양육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와 재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격 대비 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비용의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점차 학력이 높아지면서 학업에 대한 압력과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었다. 이들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 경험에 대한 평가를 자녀 수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로 이야기하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게 함을 토로했다. 특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억지로 학습을 시키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앞서가는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학습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첫 아이 위주로 양육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양육자원이 산술적으로 배분되기보다는 한 자녀에게 집중 배분되면서도 다른 자녀에게 동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양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양육 전략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거 환경 자체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도 자녀들 간의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의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자녀의 성취 욕구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산행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열은 특히 부모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보육·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해 자녀를 갖는 비용을 크게 높임으로써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주로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 분석결과도 다른 것보다는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원을 토대로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보다 정서적 자원의 공급을 강화하여 인성 및 사회적 역량에서 강점을 갖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양

육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고자 하는 가정이 외동아만을 키우면서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좀 더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고자 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녀를 한 명 정도만 갖는 것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여 치열한 교육 경쟁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인지적 성취만을 염두에 둔다면 가급적이면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에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 등에서도 가시적인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의 정의적 발달에서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은 연구 방법에 내재된 제한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Cameron et al.(2013)의 연구는 인구 억제를 위해 중국에서 1979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어난 외동아들이 신뢰감이 낮고, 위험을 회피하며, 경쟁에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성실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면서 급속한 출산력 감소를 경험한 것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머니들은 중국 어머니들에 비해 형제아보다 외동아를 더 과보호하고 성취에 대한 요구도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안리, 정영숙, 2009). 이를 통해 중국의 외동아에 비해 한국의 외동아는 정의적 발달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실 고도 성장기에는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녀 양육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세적인 저성장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

는 크게 떨어지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시대적합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외동아 대신 형제아를 두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서로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부모를 여읜 후에 인생의 태반을 동기(同氣)의 사회적 지지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조치는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둘은 되어야 안심이다."라는 구호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왕 자녀를 둘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두 명은 두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고 시대적합성을 갖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비 가운데 특히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에듀푸어'로 전락하는 것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노후 대비까지 포기하며 아낌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녀에게 보다 안온하고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열화와 같은 교육열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Caplan(2011)은 이러한 선택의 무모함과 불합리성을 환기시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취가 양육 방식보다는 유전형질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좌우됨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취 수준을 높이려는 부모의 각별한 노력이 아동기 초기에는 다소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과실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김경근, 2015).

자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아낌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한 부모로서는 자녀가 나중에 그 은공을 갚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는 착각이나 환상일 가능성이 높다. 정재기(2007)는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층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들을 거의 찾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노후에 자식이 자신을 가끔씩이라도 찾게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세간의 속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에듀푸어' 신세가 될 정도로 무리한 지출을 감행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합리성'의 지배를 받아 왔다. '주관적 합리성'은 충분한 노력이 뒷받침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입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계산법'을 일컫는다. 실제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도 세칭 명문대학 졸업자들이 누리는 사회경제적 보상과 특전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에서 무리를 해 가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태는 이러한 '주관적 합리성'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경근, 2003).

그런데 한국 학부모들이 이처럼 '주관성 합리성'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집단추종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교육열 발산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이 착시현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김경근, 2015).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력주의의 폐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적 성취가 지능과 같은 선천적 능력보다는 투입된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강고한 믿음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 부모를 독친(毒親)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학령기 내내 지속되면서 자녀의 성격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노후까지 포기하며 자녀의 유아기부터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이 독서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한편 활발한 신체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 및 인성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자동화와 로봇 대체에 대응하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사회성, 공감 능력 등을 배양하는 데도 커다란 이점을 가질 수 있다(김경근, 2015). 무엇보다도 지금은 인성이라는 가치가 무척 희소한 시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취업에서도 세칭 명문대학이 갖는 프리미엄보다는 '반듯한 품성'이 갖는 매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직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희돈. (1994).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전망. 대학교육, 73, pp.79-90.

경향신문. (2015. 4. 22.). 영·유아 사교육비 확 늘었다. A14면.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pp.211-226.

김경근. (1996).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동과 그 배경: 경제발전과 교육열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6(1), pp.33-50.

김경근. (1998).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8(2), pp.1-32.

김경근. (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학연구, 41(4), pp.87-106.

김경근. (2015).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역할과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부산광역시교육청 2015 사교육 경감 토론회 발표자료집, pp.1-16.

김경근. (2016). 한국사회 교육열의 동인, 유산, 승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교육학연구, 54(1), pp.229-257.

김경동. (1993). 한국사회변동론. 서울: 나남출판.

김경희. (1987).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김대일. (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pp.73-102.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pp.67-95.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두섭. (2015).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5, pp.22-35. 대전: 통계개발원.

김두섭, 계봉오. (2014).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동향 2014, pp.35-42. 대전: 통계개발원.

김두환. (2015). 한국 고등교육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사회사상과 문화, 18(3), pp.139-186.

김미숙, 조성호, 최은진, 홍석표, 이주연, 강지원, 권소일, 성균관대학교 SRC. (201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태. (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교육, 7(1), pp.172-189.

김성준. (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pp.151-223.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pp.1-34.

김영화, 유한구. (1994). 대학 진학 수요 결정 요인의 시계열 분석(1962~1992). 교육학연구, 32(1), pp.79-191.

김용미. (2016).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미. 아동교육, 25(2), pp.47-64.

김우영. (2008). 기혼 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Working paper 338).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윤희, 강민주. (2010).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1(3), pp.1-16.

도미향, 김응자. (2005). 외동이의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2), pp.63-81.

도미향, 윤지영. (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pp.75-85.

류기철, 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

민현주, 김현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pp.198-222.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박남기. (1994).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32(5), pp.185-206.

박성연, 도현심. (199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pp.35-47.

박현준, 김경근. (2012). 한국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1966-2010. 교육사회학연구, 22(4), pp.113-139.

박휴용. (2014). 저출산으로 인한 부모자원의 집중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pp.269-290.

보건복지부. (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안리, 정영숙. (2009).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pp.49-68.

서정연, 김한곤. (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8(3), pp.1-24.

송유미, 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pp.27-61.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pp.3-36.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pp.103-134.

신윤정, 성태윤, 최은정. (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종범. (20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서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우석진. (2008). 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14(3), pp.55-105.

우석진. (2010).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pp.51-74.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pp.25-50.

우해봉. (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pp.151-179.

유구종, 조희정. (2010).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특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pp.137-160.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pp.159-184.

윤태림. (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 pp.143-176.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각. (2002). 교육열의 운동법칙과 결합법칙. 교육사회학연구, 12(1), pp.173-192.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pp.117-144.

이현정, 조성연. (2002).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pp.139-148.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반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 pp.157-178.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홍기석, 한진희, 임경묵, 문형표, 박창균, 신인석, 안종범, 김용하, 이철희.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순. (1993). 아동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36, pp.269-309.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 (2015).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박세경, 이삼식, 조남훈, 최병호. (2005).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여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최준욱, 송헌재. (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pp.57-83.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하준경. (20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39, pp.137-173.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1-30.
한국경제. (2015. 3. 5.). 시대별로 달라진 '자녀의 가치' … 노후 의탁→키우는 재미→교육·투자 대상. 9면.
한남제. (1986). 가족가치관의 변화.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47-184.

Anderson, T., & Kohler, H. P.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pp.196-215.
Arellano, M., &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pp.277-297.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and Wu, T. S. (1975). *The Value of Children*. Honululu: East-West Center.
Ashner, L., & Meyerson, M. (1997).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When is Enough, Enough?: What You Can Do If You Never Feel Satisfied]. (조영희 역). 서울: 에코의서재.

Azmitia, M. & Hesser, J. (1993). Why sibling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2), pp.430-444.

Bain, K. (2012). 최고의 공부: 창의성의 천재들에 대한 30년간의 연구보고서 [What the best college students do]. (이영아 역). 서울: 와이즈베리.

Baker, D. (2014). *The schooled society: The educational transformation of global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Baltagi, B. (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 Sons.

Basu, A. M. (1999). Women's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in south Asia: Do men really not matter?. *in Critical Perspectives on Schooling and Fertility in the Developing World*, (pp. 267-286),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Basu, A. M. (2002). Why does education lead to lower fertility? A critical review of some of the possibilities. *World Development*, 30(10), pp.1779-1790.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ecker, G. S.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pp.S33-S58.

Becker, G. S., & Lewis, H. G. (1974).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In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pp. 81-9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cker, G. S., Murphy, K. M., & Tamura, R. (1994).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cker, S. O., Cinnirella, F., & Woessmann, L. (2010). The trade-off between fertility and education: evidence from before the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15(3), pp.177-204.

Blake, J. J.(1981).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4), pp.421-442.

Bleakley, H., & Lange, F. (2009). Chronic disease burden and the interaction of education, fertility, and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1), pp.52-65.

Blossfeld, H. P., & Jaenichen, U. (1992).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s in women's entry into marriage and motherhoo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pp.302-315.

Blossfeld, H. P., & Timm, A. (Eds.). (2003). *Who marries whom?: educational systems as marriage markets in modern societies* (Vol. 12).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racher, M., & Santow, G. (1998). Economic independence and union formation in Sweden. *Population studies*, 52(3), pp.275-294.

Caldwell, J. C., Reddy, P. H., & Caldwell, P. (1983). The causes of marriage change in South India. *Population Studies*, 37(3), pp.343-361.

Cameron, L., Erkal, N., Gangadharan, L., & Meng, X. (2013). Little emperors: Behavioral impacts of China's one-child policy. *Science*, 339, pp.953-957.

Caplan, B. (2011). *Selfisf reasons to have more kids*. New York: Basic Books.

Chao, R. K. (2001). Extending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parenting style for Chinese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Child Development*, 72(6), pp.1832-1843.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Y: Academic Press.

D'Addio, A. C., & d'Ercole, M.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Publishing.

Diamond, I., Newby, M., & Varle, S. (1999). Female education and fertility: Examining the evidence. *in Critical perspectives on schooling and fertility in the developing world* (pp.23-48),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Dore, R.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Stylus Pub Llc.

Downey, D. B. & Condron, D. J. (2004). Playing well with others in kindergarten: The benefits of siblings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pp.333-350.

Downey, D. B., Condron, D. J. & Yucel, D. (2013). Number of siblings and social skills revisited among American fifth grad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6(2), pp.273-296.

Drori, G. S., Meyer, J. W., & Hwang, H. (2006). *Globalization and organization: World society and organization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Falbo, T. & Polit, D. F. (1986).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2), pp.176-189.

Friedman, D., Hechter, M., & Kanazawa, S.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3), pp.375-401.

Goldscheider, F. K. & Waite, L. J. (1991). *New families, no families?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h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pp.506-519.

Guo, G., & VanWey, L. K. (1999). Sibship size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Is the relationship caus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2), pp.169-187.

Heckman, J. J. (1976). A life-cycle model of earnings, learning, and consump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pp.S11-S44.

Hoffman, L. W., & Hoffman, M. L. (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NY: Basic Books

Hoffman, L. W., Thornton, A., & Manis, J. D. (1978).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 Environment*, 1(2), pp.91-131.

Holtz-Eakin, D., Newey, W., & Rosen, H. S. (1988). Estimating vector autoregressions with panel data.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56(6), pp.1371-1395.

Hurlock, E. B. (1964). *Child Development* (4th ed.). NY: MacGraw Hill Book Co.

Hyman, H. H., Wright, C. R., & Reed, J. S. (1975). *The Enduring Effects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Isen, A., & Stevenson, B. (2010). *Women's education and family behavior: Trends in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No. w157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ejeebhoy, S. J. (1995). *Women's Education, Autonomy, and Reproductive Behavior: Experi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2), pp.357-361.

Joëlle, E. S.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Publishing.

Kagitcibasi, C. (1982). *The Changing Value of Children in Turkey*. Honolulu: East-West Center.

Kalmijn, M.(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and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395-421.

Kitzmann, K. M., Cohen, R., & Lockwood, R. L. (2002). Are only children missing out? Comparison of the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of only children and sibling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3), pp.299-316.

Kohlmann, A. (2002). *Fertility intentions in a cross-cultural view: The value of children reconsidere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2002, 2.

Lam, D. (1988). Marriage markets and assortative mating with household public goods: Theoretical results and empirical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pp.462-487.

Lawrence, I. (2005).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timing of marriage in Kenya. *Demographic Research*, 12, pp.1-28.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pp.457-479.

Lundberg, S., & Pollak, R. A. (2007). The American family and family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2), pp.3-26.

Mare, R. D. (1991). Five decades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15-32.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Meyer, J. W. (1977). The Effects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1), pp.55-77.

Mincer, J. (1984).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pp.195-205.

Moffitt, R. (1984). The estimation of a joint wage-hours labor supply mod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 pp.550-566.

Murphy, T. E. (2010). Old Habits Die Hard (Sometimes). *Can département heterogeneity tell us something about the French fertility decline*. Bocconi University Innocenzo Gasparini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364.

Murtin, F. (2009). *On the Demographic Transition*. OECD Publishing.

Nauck, B. (2007). Value of children and the framing of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10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pp.615-629.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563-591.

Oppenheimer, V. K. (1994). Women's rising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industri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2), pp.293-342.

Park, H. & Smits, J. (2005).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South Korea: Trends 1930-199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3, pp.103-127.

Population Reference Bureau(2016). *201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 C.

Requena, M., & Salazar, L. (2014).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The Spanish Case. *Journal of Family History*, 39(3), pp.283-302.

Riggio, H. R.(1999). Personality and social skills differences between adults with and without sibl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5), pp.514-522.

Satoshi, M.(2005). Educational homogamy in contemporary Japan. *Social Science Japan*, 33, pp.9-11.

Schultz, T. W. (1973). The value of children: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S2-S13.

Shen, J. & Yuan, B. (1999). Moral values of only and sibling children in mainland China. *The Journal of Psychological*, 133(1), pp.115-124.

Smits, J. & Park, H. (2009). Five decades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10 East Asian societies. *Social Forces*, 88(1), pp.227-255.

Spaeth, J. L. (1976). *Cognitive complexity: A dimension underlying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process*. pp.103-131 in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edited by W.H. Sewell, R.M. Hauser, and D.L. Featherman. New York: Academic.

Steelman, L. C., Powell, B., Werum, R., & Carter, S. (2002).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ibling configuration: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28, pp.243-269.

Strohschein, L., Gauthier, A. H., Campbell, R., & Kleparchuk, C. (2008). Parenting as a dynamic process: A test of the resource dilutio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pp.670-683.

Thornton, A., Axinn, W. G., & Teachman, J. D. (1995). The influence of school enrollment and accumulation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762-774.

Trent, K., & South, S. J. (1992). Sociodemographic status, parental background, childhood family structure, and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pp.427-439.

Trent, K. & Spitze, G. (2011). Growing up without siblings and adult sociability behaviors. *Journal of Family Issues*, 32(9), 1178-1204.

Walker, J. R. (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3), pp.223-251.

Wan, C., Fan, C., Lin, G., & Jing, Q. (2010). Comparison of personality traits of only and sibling school children in Beij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4), pp.377-388.

Willis, R. J. (1982). The direc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demographic transition: the Caldwell hypothesis reexamine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 pp.207-234.

Yucel, D.(2014). Number of siblings and personality: Evidence among eighth graders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 cohort(ECLS-K). *The Social Science Journal*, 51(1), pp.10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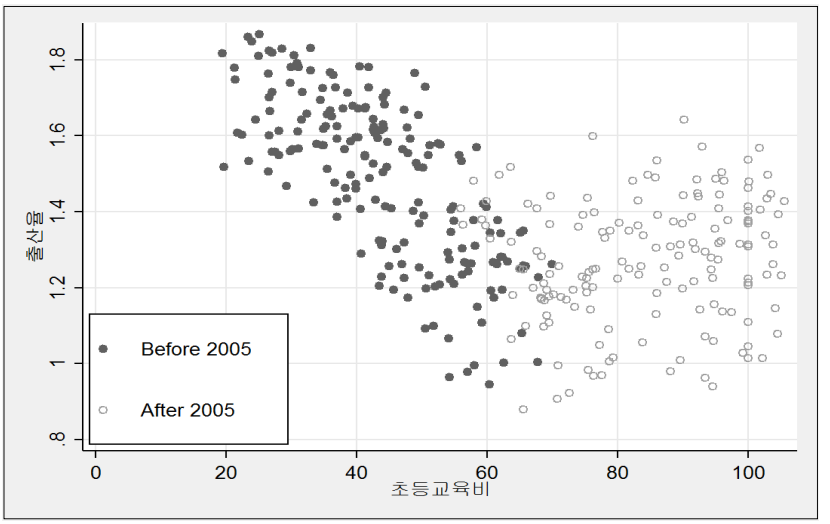
Zajonc, R. B. (1975). Dumber by the dozen. *Psychology Today*, 8(8), pp.3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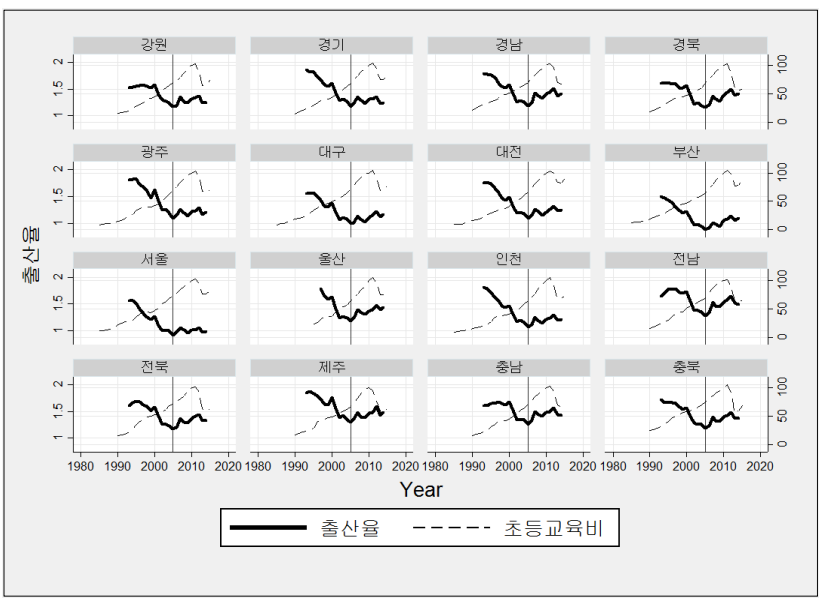
Zajonc, R. B. & Markus, G. B.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1), pp.74-88.

Zhang, Y., Kohnstamm, G. A., Cheung, P. C., & Lau, S. (2001). A new look at the old "little emperor":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personality of only children in Chin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9(7), pp.725-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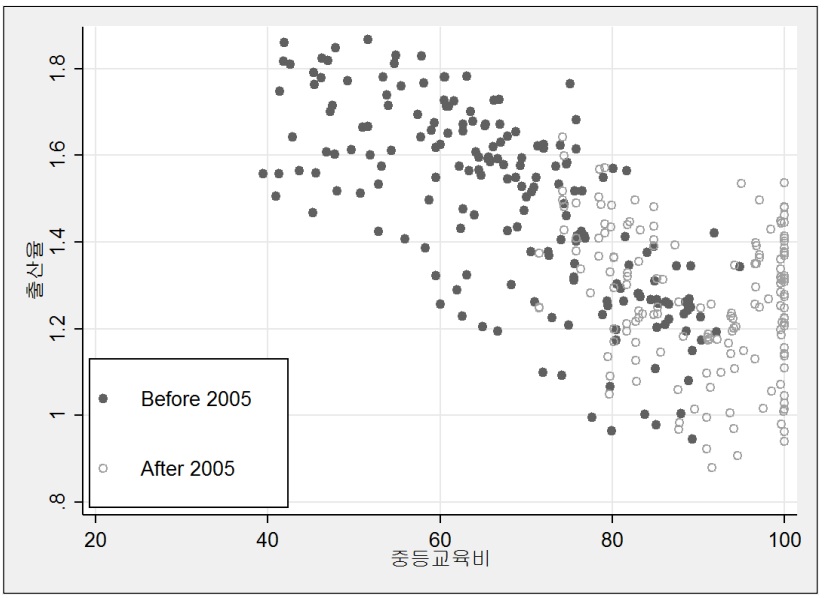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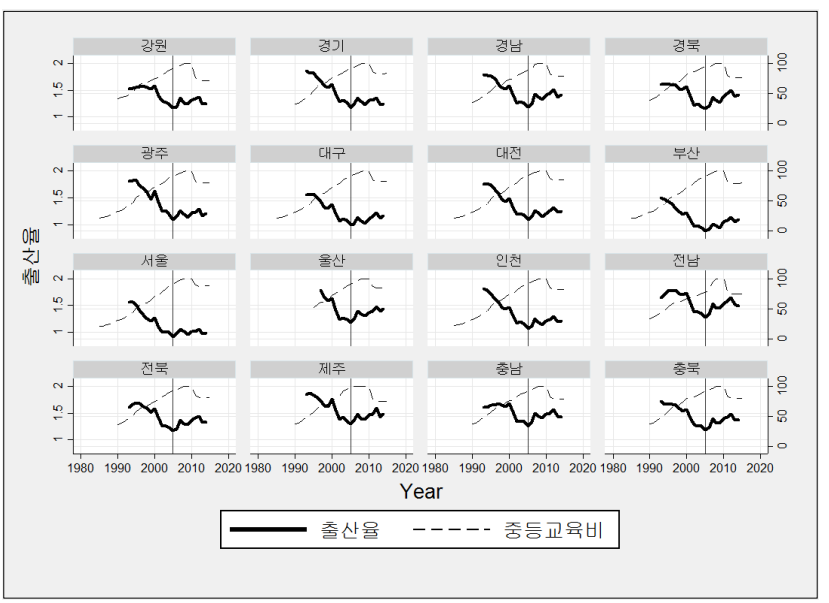
〔부그림 1〕 초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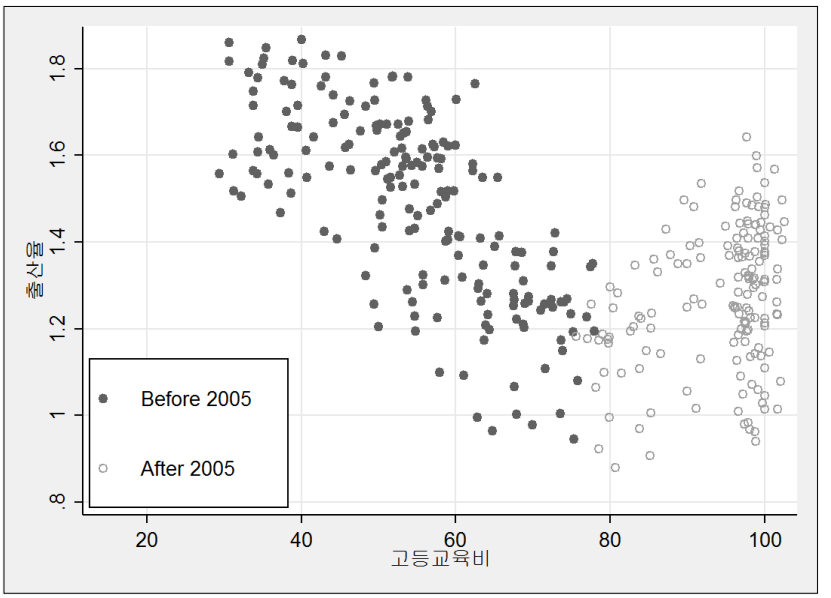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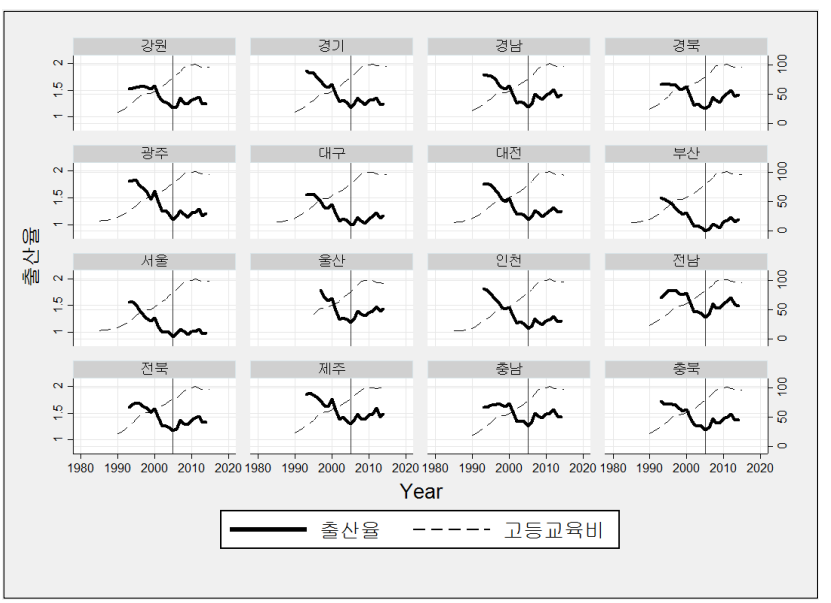
〔부그림 2〕 중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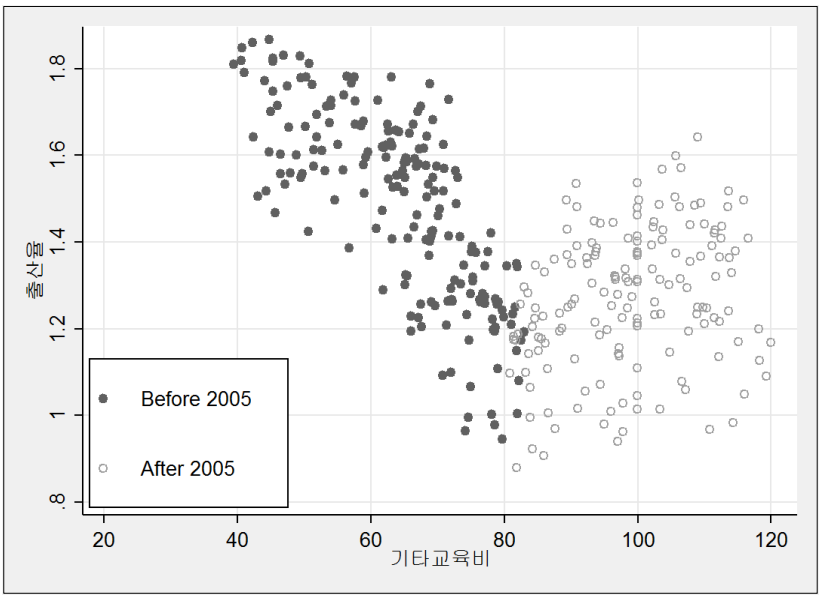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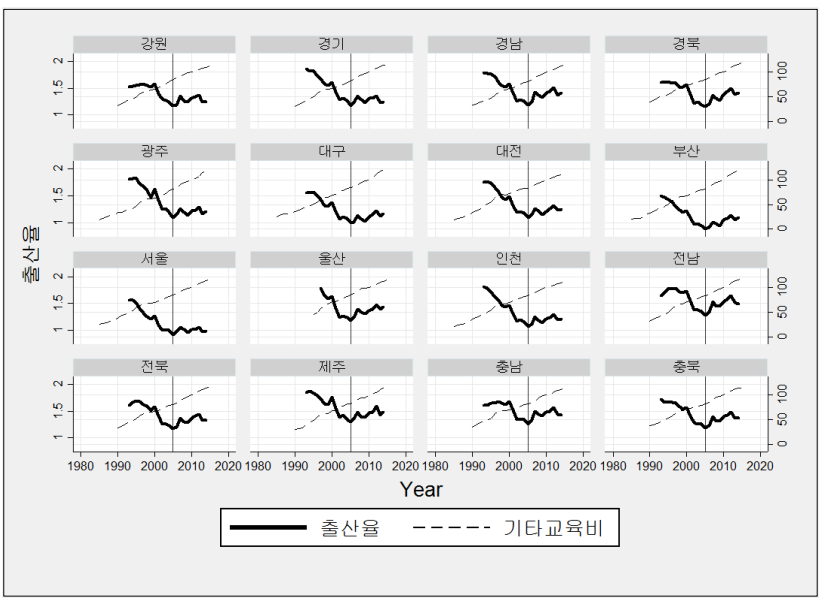
〔부그림 3〕 고등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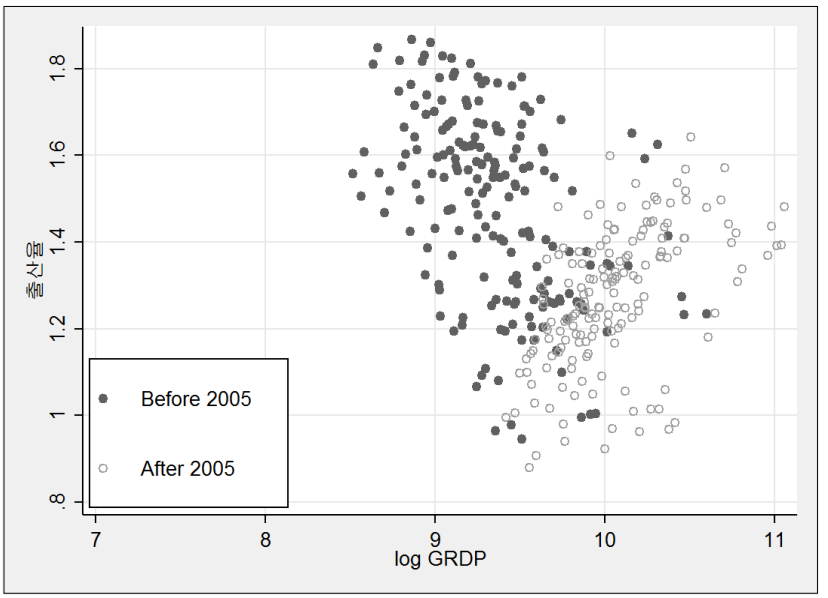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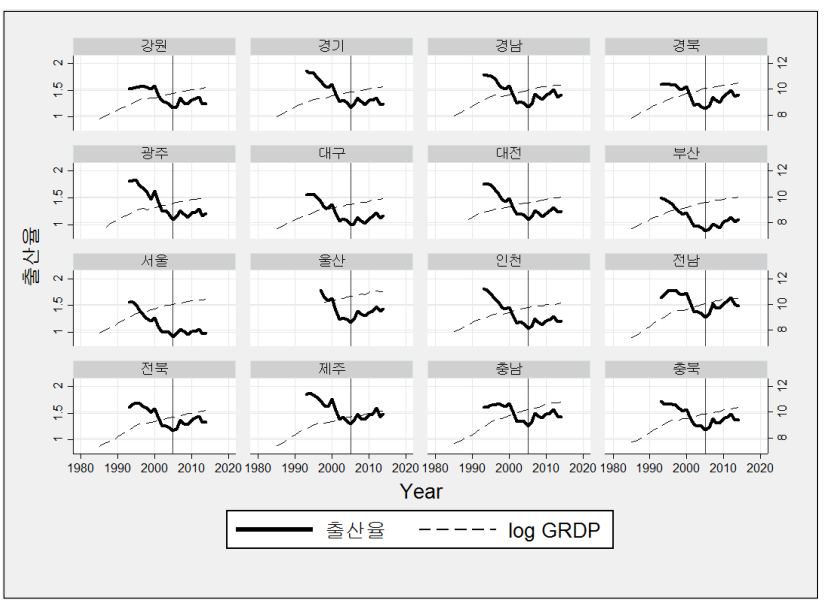
〔부그림 4〕 기타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부그림 5〕 지역내총생산과 출산율과의 관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